

17일 Market Index			
↓ 코스피	6715.41	↑ 코스닥	822.18
	(-2.56)		(+6.20)
↑ 금리 (미국 9년)	4.063	↑ 환율 (한·달러)	1383.35
	(+0.010)		(+14.75)

‘4% 금리’ 美… 추가 긴축 가능성 韓, 연내 세번째 금리인상 무게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년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하면서 한국은행도 지난 7·8월 연속 인상 이어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미 금리 격차에 따른 환율 상승 압력과 수도권 집값 불안 등이 인상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참석자들의 점도표는 연내 추가 인상과 2027년 말까지 4%대 금리를 가리켰다.

케빈 위시 연준 의장이 현재 금융여건을 “긴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완화적 요소를 일부 제거했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일회성 인상 기대도 후퇴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FOMC는 지난 15~16일(현지시간) 회의에서 연방기금금리 목표범위를 연 3.50~3.75%에서 3.75~4.00%로 0.25%p 인상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투표권을 가진 위원 12명 전원의 찬성으로 이뤄졌다.

금리 인상 자체는 시장의 예상에 부합했다. 하지만 함께 공개된 경제전망요약

연준, 3년만에 첫 기준금리 인상 점도표 18개 중 16개 ‘추가 인상’ 한미 기준금리 격차 1.0%p로 확대 환율·시장 고금리, 통화정책 영향

(SEP)과 점도표, 위시 의장의 기자회견은 연준의 긴축이 이번 한 차례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줬다.

◆ 18명 중 16명 추가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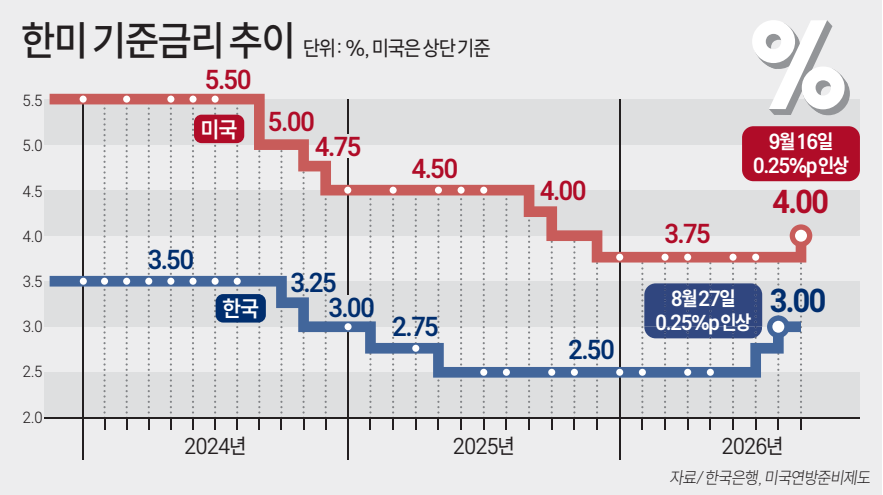
점도표를 제출한 참석자 18명 가운데 16명은 올해 안에 금리를 최소 0.25%p 더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12명은 한 차례, 4명은 두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했고 2명은 현 수준 유지를 점쳤다. 위시 의장은 지난 6월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금리 전망치를 내놓지 않았다.

올해 말 정책금리 전망 중간값은 4.1%로 지난 6월 전망치인 3.8%보다 0.3%p 높아졌다. 2027년 말 전망도 3.6%에서 4.1%로 0.5%p 뛰었다. 내년 말까지 현재보다 높은 금리 수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경제 전망도 추가 긴축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연준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2.2%에서 2.3%로 높이고 실업률 전망은 4.3%에서 4.1%로 낮췄다. 반면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전망은 3.6%에서 3.7%, 근원 PCE 물가는 3.3%에서 3.4%로 올랐다. 성장과 고용은 예상보다 강하지만 물가 둔화 속도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PCE 물가가 목표치인 2.0%에 도달하는 시점은 2029년으로 제시됐다.

정책결정문의 변화도 매파적(통화 긴축 정책 선호)이었다. 연준은 물가 상승이 에너지 등 일부 부문의 공급 충격에 기인한다는 기존 문구를 삭제하고 “이번 정책 조치는 2% 목표로 보다 적시에 복귀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라는 표현을 새로 넣었다. 공급 충격을 물가 상승의 일부 원인으로 명시했던 설명을 빼고 광범위한 물가압력에 대한 경계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위시 의장은 “인플레이션은 너무 높고 너무 오랫동안 지속됐다”며 기초적 물가 흐름이 목표치를 향해 분명하고 충분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확신을 갖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광범위한 금융여건을 긴축적이라고 묘사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위원회에서 폭넓게 공유됐다”며 “이에 완화적 요소를 일부 제거했다”고 말했다.

◆ 유가 내려도 미 금리·달러 ↑

한은 뉴욕사무소에 따르면 국제금융시장은 이번 회의를 매파적으로 평가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이 3.6% 하락했는데도 미 국제 2년물 금리는 7bp(1bp=0.01%포인트) 오른 4.74%, 10년물은 2bp 상승한 5.02%를 기록했다. 달러인덱스는 0.7% 올랐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4% 내렸다. 금리선물시장에 반영된 10월 추가 인상 확률도 40.2%에서 53.1%로 높아졌다.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

리(3.0%)와 미국 금리 상단의 격차는 1.0%p로 확대됐다. 연준이 올해 한 차례 더 올리고 한은이 동결하면 격차는 1.25%p까지 벌어진다. 한미 금리차만으로 한은의 기준금리 방향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국의 고금리가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 국내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 한은도 환율과 금융시장 안정을 함께 고려해야 해 금리 결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한은의 다음 기준금리 결정 회의는 다음 달 22일 열린다.

권만수 한은 부총재는 “위시 의장의 물가안정 의지 강조 및 추가 인상 가능성 시사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국민소득 ‘45세’ 정점 찍고 61세부터 ‘적자 인생’ 전환

데이터처, 2024 국민이전계정 2010년 적자 전환 56세, 5년 줄어

우리 국민은 소득의 정점을 45세에 찍는다. 소득은 이후 60세까지 15년간 점차 줄어든다. 61세부터는 벌어들이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 적자 난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이 10여 년 전보다 5년쯤 늦춰졌다.

국가데이터처는 17일 이런 내용의 ‘2024년 국민이전계정’을 발표했다. 이는 국민 전체의 연령별 노동소득과 소비, 공적이전소득(정부의 지원)과 사적이전소득(가족의 지원) 등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국민 1인당 생애주기를 보면, 출생 후 27세까지 적자 인생을 살다가 28세부터는 소비보다 노동소득이 많은 흑자 인생으로 전환됐다. 이 흑자 인생은 60세까지 지속됐지만 61세부터는 다시 소비가 소득 규모에 앞서며 적자로 돌아섰다. 나이가 들수록 적자 규모는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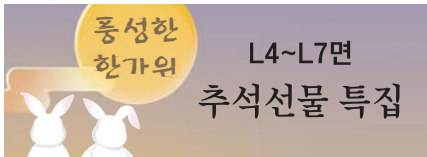
1인당 소비는 16세에서 460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1인당 노동소득은 45세에 4651만 원으로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28세의 생애주기 흑

자 규모는 2023년 206만 원에서 2024년 157만 원으로 23%가량 감소했다. 반면 45세의 흑자 규모는 1745만 원에서 1932만 원으로 10.7% 확대됐다. 61세 때의 적자 규모는 214만 원에서 76만 원으로 64.4% 줄었다. 28세 때의 흑자 감소에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5~64세 노동연령층은 2024년 소비 1059조8000억 원, 노동소득 1214조9000억 원으로 155조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흑자 규모가 18조7000억 원 늘었다. 이에 반해 0~14세 유년층은 186조2000억 원, 65세 이상 노년층은 188조9000억 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노년층 적자는 2023년보다 9조6000억 원 늘어났다.

14년 전인 2010년 국민의 적자 재진입 연령은 56세였다. 이후 2024년에 61세로 5년 늦춰졌다. 흑자 기간도 29년에서 33년으로 늘었다.



도쿄게임쇼2026 시작을 알리는 커팅식.

/최빛나 기자

글로벌 게임산업 허브 ‘도쿄게임쇼 2026’ 개막

30주년 맞아 ‘역대 최대규모’ 진행 53개 국가·지역, 1138개 기업 참여

일본 최대 게임 전시회 ‘도쿄게임쇼 2026(TGS 2026)’이 역대 최대 규모로 막을 올렸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TGS는 행사 기간을 처음으로 닷새로 늘리고 해외 기업과 인디게임,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하며 글로벌 게임산업의 ‘허브’로 변화를 시도한다.

17일 오전 일본 치바현 마쿠하리 멧세에는 개막 직후부터 전시장 곳곳에서는 신작을 직접 체험하려는 업계 관계자와 미디어

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부터 18일까지는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데이, 19일부터 21일까지는 일반관람객이 입장하는 퍼블릭 데일로 운영된다.

올해 TGS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확장’이다. 사단법인 컴퓨터엔터테인먼트협회(CESA)에 따르면 올해 행사에는 세계 53개 국가·지역에서 1138개 기업 단체가 참가했다. 지난해 1136개사를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일본 기업이 540개사, 해외 기업은 598개사다. 전체 부스도 3999개에 달한다.

전체 참가 기업 가운데 해외 기업이 일본 기업들을 웃도는 것은 일본 콘솔게임 신작

을 공개하는 무대라는 기존 TGS의 색깔에 더해 세계 각국 개발사와 퍼블리셔, 투자사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산업 전시회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즈니스 기능도 확대됐다. 글로벌 비즈니스 미팅 구역에는 251개사가 참여한다. 지난해 177개사와 비교하면 40% 이상 늘어난 규모다. 단순히 신작을 이용자에게 보여주는 전시회를 넘어 퍼블리싱과 투자, 판권 계약 등 기업 간 거래가 이뤄지는 공간의 비중이 커진 셈이다.

〈3면에 계속〉

/도쿄(일본)=최빛나 기자 vitna@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장동혁, “與 김승원 청문보고서 채택 강행,李 시켰을 것…국민과 헤어질 결심” /사진 뉴시스
▲국힘 이인선 의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바람직하지 않다”

▲국힘 원내대표 정점식, “김승원 임명 강행,李 공소취소 선전포고…범죄수사 누더기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韓·美, 연합·합동 폭발물처리 세미나·훈련 16~17일 실시
▲진보 4당, “호르무즈 파병 반대 결의안 통과시키자…與 동참 촉구”

토허제 실거주 유예 1년 연장... 임대차 갱신 최대 2년 인정

〈세입자〉

국토부, 내달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거래 보완 매수자 요건·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할 때 가능한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이와 함께 남은 임차기간만 인정했던 것과 달리 갱신계약도 추가로 인정기로 했다. 다만 매수자의 무주택 요건과 향후 2년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됐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행일 기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에 대해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무주택 실수요자가 매수할 경우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신청기한은 올해 12월 31일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 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안된 사항을 반영했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 혜택 단계적 폐지 등 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된다. 다만 기존 조치와 같이 허가를 받은 후 4개월 내에 주택을 취득 등기를 끝내야 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

트라면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 있거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등 세제 혜택 적용 기간이 당초보다 뒤로 밀릴 경우 실거주 유예 신청기간도 이에 맞게 조정된다. 실거주 유예를 해당 시점부터 15개월 간 신청 가능토록 하는 방식이다.

실거주 유예 인정 범위도 갱신계약까지 확대됐다.

기존에는 현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남은 기간까지만 입주가 유예됐지만 앞으로는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할 경우 1회, 최대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행일인 10월 1일부터 최대 3년3개월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으며, 늦어도 2029년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매수자 요건과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매수자는 올해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하며, 입주 후에는 2년간 거주해야 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번 조치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면서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거래 가능한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팩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이번 조치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많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물의 거래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으로 볼 수 있다”며 “거래 계약을 완화해 세제개편으로 형성된 매도 의사가 실제 매물과 거래로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metro

車산업, 생산 35.8%·수출 29.8%·내수 20.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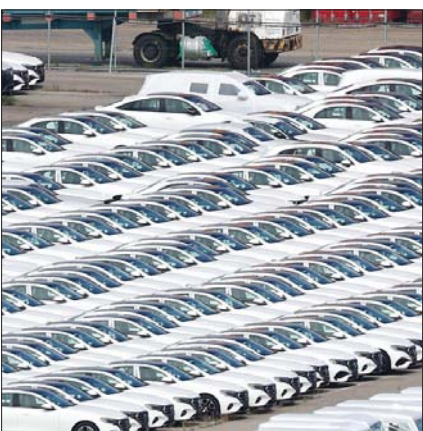
산업부, 8월 자동차산업 동향 발표
하계 휴가·일부 업체 파업 등 영향

올해 8월 국내 자동차 산업이 하계 휴가 집중과 일부 완성차 업체의 파업 여파로 생산·수출·내수가 일제히 큰 폭으로 감소했다. 다만 완성차 업체의 임금협상이 타결되면서 하반기 생산 차질 물량 회복이 기대된다.

17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6년 8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9.8% 감소한 38억 5100만 달러(약 14만 6499대)를 기록했다.

수출 감소는 주력 시장인 북미(-28.2%)와 미국(-29.5%)을 비롯해 EU(-16.8%), 아시아(-41.9%), 중동(-23.6%) 등 전 지역에서 나타났다. 생산량 역시 업계 하계 휴가 시점 이동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4일)와 일부 업체의 파업 영향이 겹치며 전년 동월 대비 35.8% 줄어든 20만 6064대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내수 판매량 역시 20.8% 감소한 10만 9920대로 집계됐다. 국산차 판매가 28.5% 급감하며 전체 내수 위축을 이끌었다.



지난 6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뉴시스

반면 역성장 흐름 속에서도 친환경차의 선전은 돋보였다. 8월 친환경차 내수 판매는 6만 8808대를 기록, 전체 내수 판매량의 62.6%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비중을 경신했다. 지난 6월 59.0%, 7월 60.5%에 이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며 내수 시장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친환경차 차종별 내수 판매는 전기차는 3만 1060대로 전년대비 27.6% 증가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1334대로 33.8% 늘었다. 하이브리드는 3만 6102대로 전년대비 17.6%, 수소차는 312대로 75.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친환경차 수출량(5만 8126대) 역시 전년 대비 16.4% 줄었으나, 전체 승용차 수출 감소폭(-26.9%)과 비교하면 선방한 모습이다. 차종별 수출 현황을 보면, 보편 하이브리드 3만 5723대(-17.5%), 전기차 2만 1404대(-5.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997대(-73%), 수소차 2대 등이다.

기업별 자동차 생산량은 ▲현대 6만 9320대(-54.8%) ▲기아 10만 4740대(-19.6%) ▲한국지엠 2만 2620대(+13.0%) ▲KG모빌리티 5670대(-29.3%) ▲르노코리아 3262대(-61.8%) ▲타타대우 452대(-30.1%) 등으로 집계됐다.

산업부는 주요 완성차 업체의 임금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남은 하반기 동안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물량이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요 완성차사 임금협상이 모두 타결됨에 따라 남은 하반기에는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물량이 만회돼 점차 수출·생산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애로 해소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서울 아파트 매매가 84주 연속 상승... 역대 최장기록 깨지나

중랑·도봉 등 상승... 강남·서초 하락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84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공급절벽과 임대차 시장 불안이 맞물리면서 역대 최장 기록인 85주를 한 주 앞두고 됐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지난 14일 기준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08%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6% 올랐다. 전주(0.20%) 대비 상승폭은 둔화했지만 작년 2월 첫째주 상승 전환한 후 84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다. 기존 서울 아파

트 매매가격이 연속 상승한 최장 기간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6월 둘째주부터 2022년 1월 셋째주까지 85주다.

상승물만 높고 보면 이미 문재인 정부를 앞섰다. 문재인 정부 85주간 8% 안팎으로 올랐지만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승률은 이미 14%를 웃돈다.

부동산원은 “국지적으로 하향 조정 매물 출회로 하락 거래가 나타났지만 수요가 견고한 신축·대단지·중소형 규모 등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세금 부담이 커진 강남권은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서울 외곽의 상승폭이 이를 상쇄했다.

중랑구가 신내·상봉동 대단지 위주로 0.51% 올랐고 ▲도봉구(0.47%) ▲서대문구(0.47%) ▲성북구(0.4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0.36%, 0.26% 하락했다.

경기는 0.18% 오르며 한 주 만에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다. 수원시 영통구의 상승률이 0.61%에 달했으며, 안양시 동안구와 용인시 기흥구도 0.45%, 0.42% 올랐다.

/안상미 기자



metro

〈캠퍼스 밖 교육용 토지 지목 구성〉

구분	캠퍼스 밖 교육용 토지	임야	학교용지	학교용지 비중
국립대(21개교)	10,546.3ha	10,064.5ha	230.6ha	2.2%
사립 4년제(140개교)	8,187.8ha	7,377.9ha	95.7ha	1.2%
사립전문대(85개교)	1,147.1ha	1,131.9ha	22.2ha	1.6%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한병도 의원실

대학, 캠퍼스 밖 교육용 토지 92% 임야 실제 교육·연구 활용현황 ‘깜깜이 관리’

수업이나 실습 등 실적 집계 되지 않아
한병도 의원 “보유 토지 전수조사 필요”

대학이 캠퍼스 밖에 보유한 ‘교육용 토지’의 대부분이 임야(산림)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실제 교육·연구에 얼마나 쓰이는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캠퍼스와 20km 이상 떨어진 원거리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보고된 토지도 확인되면서, 대학 보유 토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립대와 사립대·전문대 246개교가 캠퍼스 바깥에 갖고 있는 교육용 토지는 총 2만 151ha였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69.5배에 이르는 규모다.

이중 지목(地目) ‘학교용지’인 곳은 350ha 안팎에 불과했고 나머지 1만 8500ha는 임야로 등록돼 있었다. 비율로 따지면 92%대다. 임야에는 교육·연구에 활용되는 학술림과 연습림도 포함돼 있다. 다만, 수업이나 실습 등 세부 운영 실적이 집계되지 않아 실제 교육 목적으로 얼마나 기여하는지는 자료상으로 가늠하기 어렵다.

한 의원은 “대학 부지가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수조사로 교육·연구에 쓰이는 땅과 장기 미활용 토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캠퍼스와 멀리 떨어진 교외 부지 현황도 드러났다. 사립대 130개교가 캠퍼스에서 20km 이상 떨어진 곳에 보유한 교육용

토지는 총 6609.5ha였다. 경희대가 1387.2ha로 가장 넓었고 고려대(1,254.7ha), 동국대(758.2ha), 연세대(537ha), 성균관대(254.1ha)가 뒤를 이었다. 상위 5개 대학의 보유지가 전체 원거리 토지의 63.4%를 차지했다.

각종 규제 토지 활용에 제약 받는 사례도 확인됐다. 교육부에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 현황이 보고된 곳은 총 45개교, 3,333.9ha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국립대(8개교)가 2,447.5ha로 가장 많았고, 사립대·대학원대학(23개교) 719.9ha, 전문대(14개교) 166.5ha 순으로 집계됐다.

교육용 토지의 활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토지는 자산 가치가 크게 뛰었다. 지난해 사립대학법인 259곳이 보유한 수익용 토지 면적 자체는 10년 전보다 1.7% 줄었으나, 평가액은 9조 609억원으로 같은 기간 45.8% 증가했다.

특히 대지(地) 지목의 토지는 전체 면적의 0.8%에 불과했지만 평가액에서는 65.1%를 차지하며 면적 대비 자산 가치가 극명하게 대비됐다. 법인별 평가액은 건국대가 1조 1712억원으로 1위였고, 연세대 6881억원, 한림대(일송학원) 6763억원, 단국대 4404억원, 한양대(한양학원) 2552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한 의원은 “미활용 토지는 교육용 지위와 혜택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교육·연구·산학협력 활용 계획을 내는 대학에는 용도 전환·도시계획 변경·그린벨트 특례를 연계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kcrystal@



metro

SK하이닉스, 美 메모리 생산 검토… 기술이전·고비용 ‘걸림돌’

인텔 오하이오 공장압차·JV 설립 거론
성사 시 첫 美 메모리 전공정 생산
AI·클라우드 고객 대응 강화 기대
첨단 D램·HBM 국가핵심기술 심사
美 인건비·건설비 높아 원가 부담

SK하이닉스와 인텔의 미국 메모리 생산 협력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미국에 집중된 주요 AI 고객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을 확대할 수 있지만 한미 양국의 엇갈린 요구와 높은 생산비, 국가핵심기술 이전 심사 등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17일 로이터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인텔과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텔이 오하이오주 뉴앨버니에 건설 중인 공장 일부를 임차하거나 SK하이닉스와 인텔, 주요 클라우드 업체가 참여하는 합작법인(JV)을 설립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논의는 초기 단계로 생산 제품과 투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생성형 AI가 한국과 미국을 배경으로 SK하이닉스와 인텔의 메모리 생산 협력을 표현한 이미지.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계획이나 합의는 없다”며 “특정 기업과의 협력이나 미국 내 메모리 생산과 관련해서도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이 성사되면 SK하이닉스의 첫 미국 메모리 전공정 생산이 이뤄진다. 기존 현지 투자는 후공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달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서 40억달러(약 5조 5000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패키징 공장을 착공했다. 이곳

에서는 한국에서 생산한 웨이퍼를 활용해 2029년 하반기부터 HBM을 양산할 계획이다.

미국은 SK하이닉스 입장에서 전략적 이점이 있는 생산 거점이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AI·클라우드 고객사가 몰려 있어 수요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제품 개발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유리하다. SK하이닉스가 인디애나에 HBM 후공정과 연구개발(R&D) 거점을 함께 구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자국 내 생산 압박도 커지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국내 반도체 투자를 앞당기도록 독려하고 있어 양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실제 SK하이닉스는 지난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2기 팹(Y2)에 35조2000억원, 청주 M17에 19조1000억원 등 총 54조 3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확정했다. 용인에는 2033년까지 4개 팹을 건설할 계획이다.

전공정까지 미국으로 확대하면 기술이전 문제도 뒤따른다. 정부는 30나노 이하급 D램 설계·공정·소자와 3차원 적층형성, D램 적층조립·검사 등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전일 로이터에 미국 내 생산은 기업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되면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이전 시에는 기술 성격과 개발 과정에 따라 승인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로이터는 첨단 D램과 HBM의 미국 생산이 기술 유출 우려로 한국 정부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비용도 걸림돌이다. 미국은 한국보다 인건비와 건설비가 높은 데다 반도체 공급망 대부분이 아시아에 형성돼 있어 현지에서 메모리를 생산하면 원가가 높아질 수 있다.

이에 인텔의 기존 생산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은 초기 투자비를 줄일 수 있는 선택지로 거론된다. 인텔은 오하이오에 280억달러(약 38조7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첨단 반도체 공장 2곳을 짓고 있지만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다. 첫 번째 공장은 2030~2031년, 두 번째 공장은 2032년 가동할 예정이다.

다만 SK하이닉스가 인텔 공장을 활용할 경우 투자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생산 제품과 공정도 확정되지 않아 절감 규모를 단정하기 어렵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7월 미국 내 반도체 생산과 관련해 “고객과 정부가 더 많은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며 “여건이 된다면 미국에 공장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美 클래리티법 좌초 후폭풍… 韓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노란불’

49대50 부결 60표 문턱 못 넘어
SEC·CFTC 대체규정에도 우려 여전
美 규제 불확실성에 국내 논의 난항
정부안 지연 연내 입법 가능성 낮아져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입법을 주도했던 공화당이 민주당과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서다. 미 규제당국은 대체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규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기초법인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입법 논의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 ‘클래리티법’ 좌초… ‘대체규정’ 한계
미 상원은 지난 15일(현지시간) 클래리티법의 클로저 표결(토론종결 표결)을 진행했지만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됐다. 클로저 표결은 법안의 표결에 앞서 토



워싱턴 미 국회의사당 전경.

/뉴시스

론을 종료하기 위한 투표로, 통과에는 60표가 필요하다. 앞서 미 공화당은 충분한 이탈표를 확보했다고 밝혔는데, 11표의 큰 차이로 법안이 부결됐다. 미 의회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휴회하는 만큼 법안의 연내통과는 사실상 무산됐다.

클래리티법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을 규율하고 가상자산을 ‘상품성 자

산’ 및 ‘증권성 자산’으로 분류해 중복 규제 가능성을 해소하는 법안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증권성 자산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품성 자산은 미 상품거래위원회(CFTC)가 관할하게 된다.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규 투자 가능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원 가상자산 법안’으로 분류된다.

클래리티법이 불발되면서 미 규제당국의 자체적인 규제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SEC와 CFTC는 지난 7월 클래리티법이 불발되면 자체적인 권한을 활용해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SEC와 CFTC가 제시한 규제 영역은 ▲분류체계 명확화 ▲탈중앙화 거래 보호장치 마련 ▲RWA 선물의 승인 기간 단축 등이다.

미 규제당국이 자체적인 규제안을 마련해 규제 명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규제 불확실성에 대

한 우려가 여전하다. 행정부 지침은 법안과 달리 정권이 교체되면 언제든지 폐지될 수 있고, 클래리티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스테이블코인의 이자지급 규정과 관련한 내용도 부재해서다.

◆ ‘디지털자산 기본법’ 노란불

클래리티법이 지연되면서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기초 법안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입법 논의에도 제동이 걸렸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화하고,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발행 및 유통, 소비자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 법안이다.

당초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논의 배경에는 국제 표준에 뒤처진 국내의 규제 상황을 현실화하고,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목표가 있었다. 기본법이 논의 과정에서 해외 주요국의 규제 상황을 참조해온 만큼, 세계 최대 가상자

산 시장인 미국에서의 클래리티법의 불발에 따라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도 방향성 설정에 난항을 겪게 됐다.

시장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연내 입법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내다본다. 당초 관련법의 입법을 주도해온 민주당은 올해 하반기 내에 관련 입법 절차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법안 논의를 주도해온 민주당의 ‘디지털자산TF’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최초 입안한 의원들 가운데 일부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를 떠났다.

정부안 마련도 늦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정부안 국회 제출에 앞서 검토를 진행 중인데, 국정감사가 예정된 10월을 앞두고 관련 절차를 끝마치지 못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metro

플랫폼 비용 매출 20% 넘는데… ‘온플법’ 20건 국회서 표류

배달앱 부담률 26.2%로 가장 높아
입점업체 절반 총수수료 상한제 요구
정치권·소상공인 정기국회 처리 촉구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22대 국회에서 20건 넘게 발의됐지만 정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의 수수료·광고비 부담이 매출의 20%를 넘어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정치권과 소상공인 단체를 중심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커지고 있다.

1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규제와 중개거래 공정화를 목적으로 발의된 관련 법안은 2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김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법안 1건은 2024년 11월 철회됐으며, 나머지 법안 대부분은 정부위에 계류 중이다. 일부 법안은 법안심사소위까지 회부됐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현재 발의된 온플법은 크게 중개거래 공정화와 독점규제로 나뉜다. 중개거래 공정화법은 배달앱·오픈마켓과 입점업체 간 거래조건과 수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독점규제법은 시장지배력이 큰 플랫폼의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경쟁제한 행위를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두 내용을 함께 담은 법안도 발의돼 있다.

입법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은 배경에는 플랫폼 의존도와 비용 부담 증가가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온라인쇼핑몰·배달앱·숙박앱 입점 중소기업 1250개사를 조사한

결과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정보이용료 등 플랫폼 거래비용은 월평균 매출의 21.7%를 차지했다. 배달앱은 26.2%로 가장 높았고 온라인쇼핑몰 20.6%, 숙박앱 18.3% 순이었다. 일부 온라인쇼핑몰과 배달앱 입점업체의 부담률은 매출의 45%에 달했다.

특히 배달앱에서는 현행 차등수수료제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해 입점업체의 49.4%는 ‘변화가 없다’, 35.4%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배달비와 결제수수료 등을 포괄하는 총수수료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51.1%였다.

정치권과 소상공인 단체도 입법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로 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온플법과 음식배달 플랫폼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수수료와 계약조건의 투명한 공개, 일방적인 약관 변경 방지와 함께 중개수수료를 낮춘 뒤 광고비·배달비를 올리는 이른바 ‘똥선효과’를 차단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도 규제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오픈마켓과 배달앱 수수료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온플법 등을 통한 민간 플랫폼 규제와 정보공개가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앞서 온플법을 입점업체의 대금 지급 안정성과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로 설명하며 입법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metro

>> 1면 ‘글로벌 게임산업…’서 계속

인디·AI까지 품었다

인디게임의 존재감도 커졌다. 인디게임 구역에는 292개사가 참가하고, 별도의 엄선 인디 프로그램에는 78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올해는 AI 기술을 다루는 공간도 운영된다. 게임 개발 과정에서 생성형 AI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게임 자체뿐 아니라 제작 기술과 솔루션까지 전시 영역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다. 국내 게임사들도 TGS를 글로벌 시장 공략의 무대로 활용한다. 엔씨소프트와 넷마블, 넥슨게임즈, 스마일게이트, 컴투스홀딩스, NHN플레이아트 등 국내 게임사들이 단독 부스나 공동관 등을 통해 신작을 선보인다. 특히 일본 시장을 겨냥한 서브컬처부터 액션, 역할수행게임(RPG)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현지 이용자와 만난다.

/도쿄(일본)=최빛나기자

구광모 “AI, 미래 경쟁력 핵심… 빠른 속도·실행력 갖춰야”

(LG그룹 회장)

약 8시간 동안 사장단 회의 진행
AI 핵심 승부처 성과·전략 점검
글로벌 AI 기업 협력… AX ‘속도’

LG AI연구원, ‘전문가 AI’ 공개
산업 난제 해결 등 실제 사업 적용

“AI는 선택적 대응 아닌 미래 경쟁력 핵심 축입니다.”(구광모 LG그룹 회장·2026년 9월 사장단 회의)

LG그룹이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그룹의 투자 전략을 다시 짰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취임 이후 꾸준히 강조해 온 AI를 미래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삼고, 단순 기술 확보를 넘어 제조·로봇·반도체·인프라 등 그룹 전반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AI 중심으로 재편하는 모습이다.

LG그룹은 지난 16일 경기도 이천 LG 인화원에서 구 회장을 비롯해 LG전자·LG디스플레이·LG이노텍·LG화학·LG에너지솔루션·LG유플러스 등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진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약 8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는 AI로 급변하는 산업·기술 환경을 점검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6월 5일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의 한 고깃집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이른바 ‘삼소(삼겹살·소주) 회동’ 도중 시민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다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위한 투자 방향과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사장단은 ▲AI 팩토리 ▲디지털 AI ▲반도체 소재·기판 ▲AX(AI 전환) 등 AI 시대 핵심 승부처를 중심으로 기존 투자 성과와 전략을 점검했다. 시장·경쟁·기술 변화에 맞춰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증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는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도 재확인했다.

구 회장은 2018년 취임 이후 AI를 지속적으로 미래 성장의 핵심 요소로 제시해

왔다. 최근에는 AX 시대에는 속도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빠른 실행을 주문하고 있다. 올해 들어 글로벌 AI 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LG는 엔비디아와 로봇·AI 팩토리·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2027년 상반기 AI 팩토리 레퍼런스 구축에 이어 2028년 상반기 충남에 80MW 규모 AI 팩토리를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AI를 활용한 사업 영역도 넓어지고 있다. LG AI연구원은 제조·금융·과학 분야



조지 카메론 아티피셜 애널리틱스 공동 창립자와 이훈락 LG AI 연구원 공동 연구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LG 사이언스파크 ISC동에서 열린 ‘LG AI 토크콘서트 2026’에서 대담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전문가 AI’를 공개했으며, 산업 난제 100건 이상을 해결하는 등 AI의 실제 사업 적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 LG전자 역시 AI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혁신을 추진하며 계열사 개발자 1500여 명의 역량 결집에 나섰다.

구 회장은 이날 “AI는 더 이상 선택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축”이라며 “AI 미래 승부처에서 이길 수 있도록 사장단이 빠른 속도와 집요한 실행력을 갖춰달

라”고 주문했다.

LG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AI 관련 투자 의사결정 체계를 한층 정교화하고, 기술 확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 성과로 연결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 분기별 사장단 회의에서 AX, Winning R&D, 투자 전략을 핵심 의제로 선정한 만큼 향후 LG의 AI 전략은 ‘기술 개발→현장 적용→사업화’로 이어지는 실행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 회장은 지난 3월 진행한 사장단 회의에서도 AX를 미래 경쟁력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속도감 있는 실행’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구 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완벽한 계획보다 빠른 실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AX는 특정 조직이 아닌 CEO와 사업 책임자가 직접 이끌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LG는 설계·생산·마케팅 등 사업 전 과정에 AI를 적용하며 작은 성공 사례를 빠르게 축적하고 이를 계열사 전반으로 확산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장인화 “빠른 실행력이 생존 열쇠”… 철강·자원·에너지 ‘트리플코어’

(포스코그룹 회장)

오늘까지 송도서 ‘2026 포스코포럼’
3개 세션·외부 전문가 강연 등 진행

철강 현지화, 리튬·희토류 시장 선점
에너지 사업 완충 등 맞춤 전략 제시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철강 중심의 사업 구조를 자원·에너지로 확장하는 성장 전략에 속도를 낸다. 지난 7월 제시한 ‘트리플코어’의 청사진을 사업별 실행과 제로 구체화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다진다는 구상이다.

포스코그룹은 17일부터 이틀간 송도 포스코 글로벌 R&D센터에서 ‘2026 포스코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트리플코어는 산업자원이 철강과 리튬·양극재·음극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제58기 포스코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

재·희토류 등 전략자원, LNG·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자원을 세 축으로 삼는 포스코그룹의 성장 전략이다.

올해 포럼 주제는 ‘새로운 경쟁의 판에서 미래가치를 선점하라’다. ‘경쟁의 판이 어떻게 바뀌는가’, ‘어디서 어떻게 경쟁하고

성장할 것인가’, ‘어떻게 전환을 완수할 것인가’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외부 전문가 강연과 대담, 패널토론도 이어진다.

장인화 회장은 “지정학적 재편과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 등 경쟁의 판이 바뀌는 대전환기에는 빠른 실행력이 생존의 열쇠”라며 “트리플코어 전략을 완수하고 자원을 중심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변화의 방향을 먼저 읽고 무엇을 준비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할지 명확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사업별 핵심 과제로 철강 현지화 전략과 리튬·희토류 주요 시장 선점, 에너지 사업의 완충 역할 등을 제시했다. 사업별 경영 환경이 다른 만큼 각 사업 특성에 맞는 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한

다는 설명이다.

기조강연은 도미니크 바튼(Dominic Barton) 리오턴도 이사회 의장이 맡는다. 바튼 의장은 지정학 및 기술 변화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과 글로벌 기업의 포트폴리오 재편·투자 사례를 소개하고 포스코그룹 사업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글로벌 산업 질서 재편에 대응한 기업들의 사업 전략을 살펴보고 디지털 AI를 활용한 자율제조 기술의 적용 가능성 등을 논의한다. 포스코그룹은 포럼 논의를 토대로 그룹의 중기 실행 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TSMC, 2나노 고객 넓힌다… 삼성전자, 빅테크 물량 확보 속도

TSMC, 애플 이어 미디어텍 확보
삼성, 美 신규 고객 발굴 등 박차
테슬라·브로드컴 등 수주 확대

TSMC가 애플에 이어 미디어텍까지 2나노 고객사로 확보하며 선단공정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영업망을 확대하고 테슬라·브로드컴 등 빅테크 물량 확보에 나서며 추격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TSMC는 최근 미디어텍의 차세대 플래그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디멘시티 9600 프로’ 생산 물량을 확보했다. 대형 랩리스의 2나노 제품을 잇달아 생산하며 고객 기반과 양산 실적을 동시에 넓히고 있다.

미디어텍은 지난 15일 TSMC의 2나노 N2P 공정을 적용한 디멘시티 9600 프로를 공개했다. 지난해 9월 해당 공정을 활용한 제품 설계를 완료했다고 밝힌 데 이

어 약 1년 만에 실제 제품을 선보였다. 제품을 탑재한 첫 스마트폰은 이번 분기 출시될 예정이다.

미디어텍에 따르면 디멘시티 9600 프로는 전작보다 중앙처리장치(CPU)의 싱글코어와 멀티코어 성능이 각각 최대 17%, 15% 향상됐다. 멀티코어 소비전력은 61% 줄었다. 다만 제품 성능에는 제조 공정뿐 아니라 칩 설계와 메모리, 소프트웨어 최적화 등도 영향을 미친다.

애플도 지난 9일 공개한 아이폰 18 프로 시리즈와 첫 폴더블폰 ‘아이폰 듀오’에 TSMC 2나노 공정 기반의 A20 프로를 탑재했다. TSMC가 애플과 미디어텍의 신제품을 잇달아 생산하면서 모바일 시장의 2나노 전환도 속도를 내고 있다.

TSMC는 지난해 4분기 2나노 공정의 대량생산을 시작한 뒤 올해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애플과 미디어텍의 제품 양산을 통해 확보한 개발·검증 경험은 후

속 제품 수주에도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2나노 고객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주요 고객사의 2나노 고성능컴퓨팅(HPC) 분야 설계 채택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에는 2세대 2나노 공정 기반 모바일 제품 생산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HPC 분야 수주를 늘릴 계획이다.

최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에서 신규 고객 발굴과 기존 고객 사업 확대를 담당할 파운드리 영업 인력 채용에도 나섰다. 자체 AI 가속기를 개발하는 하이퍼스케일러와 랩리스 기업을 중심으로 신규 수주를 확대하려는 행보다.

구체적인 빅테크 고객사도 확보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테슬라와 165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에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전경. /삼성전자

2나노 공정을 활용해 테슬라의 차세대 A16 칩을 생산할 예정이다. 제품 생산은 2027년 하반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브로드컴과는 지난 7월 메모리와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의 협력 규모는 2030년까지 2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브로드컴의 차세대 통신용 반도체에는 삼성전자의 2나노 이하 공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최근 TSMC에 AI 반도체와 모바일 AP 주문이 몰리면서 선단공정 생산능력이

빠듯해진 점도 삼성전자에는 고객 확대 기회로 꼽힌다. 원하는 시기에 물량을 확보하려는 빅테크를 중심으로 복수의 파운드리 업체를 이용하는 멀티벤더 전략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메모리, 첨단 패키징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점을 앞세워 고객사를 공략하고 있다. 2나노 고객군도 모바일에서 AI·HPC와 자동차 분야로 넓히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웃음 가득할 사장님의 내일에 하나가 힘이 되어드릴게요

활기 넘치는 가게를
꿈꾸는 사장님을 위해
곁에서 든든히 함께하며

하나가 사장님의 내일에
힘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 개선 및 컨설팅 제공

공공배달앱 연계 소상공인 금융 지원

·공공배달앱(먹깨비) 이용 소상공인 보증한도 지원

소상공인 자금 유동성 확보 및 지원

·영세가맹점 매출대금 조기지급 프로그램 운영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김민석 취임 한달, 민주 지지율 하락에 ‘입법·통합’ 승부수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율 36.1%… 국힘에 6%p 밀려
정기국회 쟁점 입법 처리로 돌파
친명·친청 갈등 봉합해 원팀 과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한달을 맞은 가운데, 민주당이 지지율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대표가 메가특구특별법과 부동산 공급 확대 법안 등 정기국회 쟁점 입법 처리로 민심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특히 김 대표는 친청(친정청래)계와 거친 네거티브 공방 끝에 당권을 잡은 만큼, 당내 통합을 위한 포용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40%대의 견고한 정당 지지율을 기록해 국민의힘에 오차범위 안팎으로 앞섰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선 30%대로 지지율이 하락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에게 실시한 정당 지지율 조사(응답률 3.6%, 표본오차는 95% 신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공공성장화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수준에서 $\pm 3.1\%$ 포인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6.1%로, 42.1%를 기록한 국민의힘에 6%포인트 뒤졌다.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이라고 불린 김 대표의 취임이라는 큰 정치적 이벤트 후에도 ‘컨벤션 효과’ 없이 정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서울에선 국민의힘에 14.1%포인트, 18~29세에선 46.5%포인트, 30대에선 15%포인트차로 뒤지는

것으로 나오며 서울과 청년세대의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이같은 지지율 하락세에 일회 일비하지 않고 정기국회에서 쟁점 입법을 처리하고 당 내부 통합으로 지지를 결집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대표는 17일 민주당TV의 코너 ‘민티07’에 출연해 “우리가 만들어낸 대통

령을 임기 1년에서 2년 차로 넘어가는 시점에 이러저러한 일시적인 지지율의 굴곡에서, 또 내우외환에서 단단하게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은 ‘당정일치’를 기반으로 정기국회에서 주요 쟁점 입법 처리에 나선다. 먼저 첨단기술 기업 발전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반도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메가특구특별법 연내 처리를 노린다. 또한 용산공원특별법 등 서울 내 청년 거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 법안을 정기국회 처리 목표 법안으로 설정하고 야당을 설득 중이다.

친청계와 친명(친이재명)계의 갈등을 치유하고 당을 통합해 ‘원팀’으로 만드는 작업도 김 대표의 당면 과제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과반을 잡지 못해 선호투표제를 거친 끝에 54.08%의 지지를 받아 당 대표에 당선됐다. 친명계를 대리하는 김 대표와 당 대표 연임을 노렸던 정청래 전 대표가 막상막하의 대결을 벌였으며 그 과정에서 네거티브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대표는 ‘민티07’ 방송에서 정 전 대표가 전당대회 내내 사용한 ‘4통(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4통 통합을 넘어 지도자와 우리 당원, 지지자들을 다 포함하는 온통 통합으로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대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전방위 대통령에 본격 시동을 걸겠다”며 “한편으로는 당을 안정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진보 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그에 더해서 중도 보수 세력과의 대화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 대표는 진보세력 연대와 관련해 조국혁신당과 합당·연대 논의도 추진해나간다고 했다. 다만, 합당 및 연대의 세부 조건을 따지는 과정에서 김 대표와 조국혁신당 측의 신경전이 벌어지며 향후 관계 설정과 실제 합당 추진 구체화에도 관심이 모인다.

한편, 여론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선거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김승원 임명 강행에… 국힘, 대여 공세

〈법무부장관 후보자〉

‘이재명 정부 인사실패’ 정조준
22일 국민보고대회로 장외투쟁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앞세워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임명 강행을 추진하자 개인의 도덕성과 자질 문제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실패와 사법리스크 문제로 전선을 확대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이재명 정부 실정 국민 보고대회’를 시작으로 추석 이후에도 장외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도 마친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민주당 주도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나서자, 이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제대로 된 검증은 원천 봉쇄한 채 정해진 결론대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전횡에 결코 동의할 수 없어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며 “지금이라도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압박은 후보자 개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정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의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법무부장관과 강신철 국방장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발하는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의 문제를 넘어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방향으로 확대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무부를 대통령 개인의 사법리스크 해소용 방패로 만드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향후 발생할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고 못 박았다.

당 지도부 역시 김 후보자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도면 안 하느니만 못한 개각”이라며 “김승원 인사청문회는 보기에도 낮 뜨거

운 저질 코미디였다”고 비판했다.

당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과거 ‘조국 사태’에 빗대며 여권의 인사문제로 확장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김 후보자의 각종 의혹뿐 아니라 민주당의 청문보고서 채택과 향후 이 대통령의 임명 여부까지 묶어 정부·여당의 인사 검증과 도덕성 문제를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김승원 지명 철회하겠다. 연임 공소 취소 없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

법무부장관 청문보고서 민주당 단독 처리

국민의힘 “요식행위”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17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표결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이틀만이다.

김 후보자는 평소 친분이 있던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경유용 치료제 제넨셀의 임상 승인을 위해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민원 전화를 한 의혹과, 배우자와 아들이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협동조합 관련 의혹으로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았다.

박형수 법사위 야당 간사는 법사위 퇴장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보고서 채택 안건 상정은 지금까지의 청문회 자체가 요식 행위였다는 것을 증명해준다”며 “청문회에서 의혹이 해소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의겸 법사위 여당 간사는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은 다 알겠지만, 위나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견 차가 컸기 때문에 절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이해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하려 하고 있다”며 “밤사이 청와대의 오더를 받았는지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청문보고서를 상정하여 밀어붙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태홍 기자

李, IEA 총장과 ‘에너지 안보’ 협력 논의

〈국제에너지기구〉

李 “중동·에너지 전환 큰 장애”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파티 비를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을 만나 중동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 에너지 전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비를 사무총장과 접견한 자리에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서 국제에너지기구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중이긴 한데, 최근에 중동 위기 때문에 생긴 에너지 위기가 에너지 전환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략적 방침에 따라서 국제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비를 사무총장은 “지금 전 세계는 엄정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파티 비를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을 접견하기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난 대규모 에너지 위기를 마주하고 있고, 이는 여러 경제들의 큰 역할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런 접견은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제안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에너지 공급망 회복력 강화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예진 기자 syj@

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형사사법 개편 후속법도 처리

국회가 17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57·사법연수원 24기)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의결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16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담겼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정됐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할 경우 김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 된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편 후 후속조치 법안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부

수 법안에도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했으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는 신청하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중수청이 보완수사·재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중수청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소청법·검사징계법 등을 의결한 바 있다. 이 회의에서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앞서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소위 회부 없이 전체회의에서 바로 의결했다.

/박태홍 기자

평생 빛나며 살라고 **이도운**

평생 나답게 살라고 **나다운**

평생 뛰어나게 살라고 **김수**

평생 곱게 살라고 **김꽃님**

평생 그렇게 살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말, 이름

이름에 담긴 바람대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의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 합니다
H 현대해상

평생 사람들을 잘 이끄는 인물이 되라고

이정재

JB금융, 외국인 전용상품 마련…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

광주은행, 금전에 ‘외국인금융센터’ 수도권 외국인 금융수요 대응 나서 국내 외국인 대출시장 점유율 70% 전북銀 근로자, 광주銀-유학생 대응

JB금융그룹이 외국인 금융을 확대하고 있다. 주요 계열사를 중심으로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전용 상품을 출시하고, 온·오프라인으로 외국인 전용 상담을 서비스한다. 대출 다변화를 통해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중·장기 고객 확보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17일 JB금융그룹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최근 서울 금천구에 ‘외국인금융센터’를 개점했다. 광주은행은 금천외국인금융센터를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 내 외국인의 금융 수요에 대응하고 대출을 다변화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JB금융은 기존에도 전북은행의 ‘동대문외국인금융센터’를 통해 수도권 내 외국인 금융수요에 대응해 왔다.

국내 외국인 금융 시장에서 JB금융이



전주 전북은행 본점과 김기홍 JB금융그룹 회장.

/JB금융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JB금융은 국내 외국인 대출 시장에서 점유율이 70%에 달한다. 지난 2분기 말 기준 전북은행의 외국인 신용대출 잔액은 6648억원 규모다. 광주은행도 706억원의 대출잔액을 기록했다. 담보대출 위주로 상품을 운용하는 JB우리카페탈도 3492억원의 외국인

대출을 공급했다.

계열사별 전략도 뚜렷하다. 전북은행은 중앙아시아·남아시아 출신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한 서울 동대문·경기도 안산 지역에 특화 점포를 출점해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JB우리카페탈은 외국인 대상 중고차 할부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했

다. 광주은행은 수도권 내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사업자의 금융 수요에 대응한다는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지주사 차원에서 계열사의 외국인 금융 확대를 지원한다. JB금융지주는 지난 3월 입국 초기 외국인도 임시식별번호를 통해 전북은행·광주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했다. 지주사 채용 전형에는 외국인 대상 서비스 연구를 위한 외국인 전형을 신설해 전문성 높은 외국인 유학생 출신의 직원을 충원했다.

JB금융이 외국인 고객 확보에 적극적인 것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높은 주요 고객층으로 부상해서다.

작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8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에 해당한다. 외국인 고객은 환전이나 송금 등 금융 서비스 이용률이 높다. 또 계좌 발급이 번거로운 특성상 장기 거래를 선호한다. 또한 외국인 고객은 대안정보나 기업 보증을 활용한 전용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잦는데, 해당 대출 상품들은 일반 대출

보다 수익성이 높은 편이다.

지역금융의 성장 한계도 JB금융그룹이 외국인 금융을 확대하는 이유다. JB금융의 주요 계열사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지방은행에 해당하는 만큼, 거점지역인 서남권 바깥에서는 제한적으로만 영업할 수 있다. 점포와 인력도 서남권에 편중됐다. JB금융이 점포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영업 확대보다는 수익성과 잠재 성장력이 높은 외국인 금융 분야에 적극 투자하는 이유다.

외국인 금융 확대에 대한 김기홍 JB금융그룹 회장의 의지도 명확하다.

JB금융 관계자는 “최근 JB금융의 외국인 채용 확대는 JB금융의 외국인 대상 서비스 확대를 위해 김기홍 회장이 직접 추진한 사안으로, 본인이 미국 유학 시절 치열한 경쟁 속에서 능력을 증명하고 자했던 경험에서 착안했다”라며 “외국인 채용 확대 이후 외국인 대상 대출이나 디지털 서비스에서도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부실 PF 정상화 지원… 3조 신규펀드 조성

금융위, 캠프 지원펀드 실적·계획 점검 605억 펀드 투입 3000억 사업 정상화 총 178가구 규모 아파트 2028년 준공

금융위원회가 캠프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를 활용한 부실 사업장 정상화 사례를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3조원 규모의 신규 펀드 조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7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한 PF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의 금융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캠프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의 운용실적과 신규 펀드 조성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한 마포구 사업장은 PF시장 불안과 부동산 경기 둔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으나 캠프 펀드 지원을 통해 정상화한 사례다.

해당 사업장은 2022년 하반기 이후 본PF 전환에 실패하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신한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캠프펀드가 2024년 5월부터 총 605억원을 투자해 기존 채권과 사업권을 인수하고 사업 재구조화에 나섰다. 이 가운데

캠프 자금은 275억원이다.

펀드 투입 이후 기존 도시형생활주택에서 중·소형 아파트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신규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본PF 전환이 이뤄졌다. 사업장은 올해 2월 착공한 데 이어 4월 분양을 마쳤으며 현재 분양률은 100%다. 총 178가구 규모로, 2028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사례에 대해 605억원의 펀드 투입으로 약 3000억원 규모의 부실 주거 사업장을 정상화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캠프에 따르면 2023년 9월 조성된 기존 캠프펀드 규모는 총 1조953억원이다. 이 가운데 캠프가 5000억원, 민간이 5953억원을 출자했다.

현재까지 총 8193억원의 투자가 완료됐으며, 이 가운데 3730억원이 주거사업장에 투입됐다. 이를 통해 약 3881가구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캠프펀드 투자와 별도로 민간 병행투자도 약 4500억원 추가 유치됐다.

정부는 기존 펀드에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3조원 규모의 신규 캠프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 투입도 추진한다.

권 부위원장은 “사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캠프펀드가 용도변경과 시공사 변경 등을 통해 사업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민간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며 “부실사업장 정상화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신규 조성될 캠프펀드가 주목적 투자 비중인 60% 만큼 주거사업장에 투자될 경우 약 1만8000가구의 주택공급이 기대된다”며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신규 펀드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운용사들은 신규 펀드의 투자 대상과 집행 방식의 유연성을 높이고, 민간 자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석원 신한자산운용 대표는 “신규 캠프펀드가 주택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갑주이지스자산운용대표도 “사업장별 다양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투자 대상과 투자 조건의 유연성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유리 기자 yul115@

신한금융, 우즈베크·카자흐와 금융협력

중앙아시아 금융시장 진출 속도

신한금융그룹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정부·국영 금융기관과 잇따라 협약을 맺고 중앙아시아 금융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14~15일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무역부 및 카자흐스탄 국영 개발금융그룹 바이테렉(Baiterek)과 금융협력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무역부와 협력계약(Cooperation Agreement)을 맺고 현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최대 2억달러 규모의 자금지원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현지 투자 프로젝트를 공동 발굴하고 인프라·신재생에너지 분야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양측은 정기 협의회를 운영하며 추가 협력 과제도 발굴하기로 했다.

신한금융은 카자흐스탄과의 금융협력도 확대한다.

신한금융은 같은 날 열린 한국-카자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무역부와와의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오른쪽 첫번째)과 정상혁 신한은행장(두번째)이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흐스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카자흐스탄 국영 개발금융그룹 바이테렉과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직무 연수와 시찰 방문, 세미나·워크숍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 현지 금융정보와 신한금융의 금융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다. 카자흐스탄 산업·인프라 개발 사업과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홍콩 ELS’ 은행 과징금, 추가 감경 가능성

금융위, 은행 제재안 상정 안해 ‘관련 민사소송 은행 승소’ 변수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에 대한 은행권 제재가 장기화하고 있다. 최근 관련 민사소송에서 은행 측 승소 판결이 잇따르면서 최종 과징금 수위가 추가로 낮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안전검토소위원회에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의 홍콩EL

S 제재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제재 수위가 확정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금융위는 지난 5월 홍콩ELS 제재안을 논의한 뒤 일부 사실관계와 범의 검토가 필요하며 금융감독원에 보완을 요구했다. 이후 금감원은 지난 6월 5개 은행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약 6000억원으로 낮춰 다시 의결했다. 지난 2월 금융위에 제출했던 약 1조4000억원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수준이다.

최근 이어진 민사소송 결과도 변수로

떠올랐다. 국민은행이 ELS 투자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농협은행도 최근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투자자의 금융상품 거래 경험과 투자 경력 등을 토대로 상품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았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민사판결을 최종 제재 수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금융위가 앞서 사실관계와 함께 적용 법리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구한 만큼 은행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과징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나유리 기자

고객 입력 문장 분석 정보 찾아줘

KB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에 생성형 AI를 활용한 ‘KBAI’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KB AI는 고객이 일상적인 표현으로 질문하면 AI가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 필요한 정보나 금융서비스를 안내하는 대화형 금융서비스다.

자연어 기반 통합검색을 적용해 고객이 입력한 문장의 의미와 맥락을 분석하고, KB스타뱅킹의 메뉴와 금융상품, FAQ 등 관련 정보를 한 번에 찾아준다. 기존 키워드 중심의 검색 방식과 달리 정확한 메뉴명이나 금융 용어를 몰라도 원하는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단순한 정보 검색을 넘어 실제 금융거래까지 대화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달 체크카드 사용내역 보여줘”, “아들한테 용돈 10만원 보내줘”처럼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AI가 고객의 의도를 파악해 조회 및 이체 등 해당 서비스를 실행한다. 고객이 메뉴와 기능을 일일이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검색·조회·이체 등 기능별로 대화창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화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고객은 이용하려는 AI 기능을 별도로 선택하거나 화면을 이동할 필요 없이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안상미 기자 smahn1@

KB국민은행, 스타뱅킹서 ‘KB AI’ 서비스

삼성전자, ‘One UI 9’ 업데이트 영상·보안·통역 등 AI 경험 확장

S26시리즈부터 순차 업데이트
‘마이 팬캠·나우 너지’ 등 눈길
온디바이스 AI 기반 위험 감지

삼성전자가 영상 속 원하는 인물을 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 따라가는 ‘마이 팬캠’을 갤럭시 S26 시리즈에 적용한다. 사용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기능을 제안하고 개인정보 위험을 감지하는 기능도 추가하며 갤럭시 AI 경험을 확대한다.

삼성전자는 16일 국내에서 갤럭시 S26 시리즈를 대상으로 ‘One UI 9’ 공식 업데이트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글로벌 시장으로 업데이트를 확대하고 지원 기기도 순차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One UI 9은 안드로이드 17을 기반으로 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한국과 미국, 영국, 독일, 폴란드, 인도에서 S26 시리즈를 대상으로 베타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후 지난 7월 공개한 갤럭시 Z 시리즈 3종에 One UI 9을 적용했으며 이달에는 S25 시리즈와 Z 폴드7·폴드7 등으로 베타 대상을 넓혔다. One UI 9은 개인 맞춤형 AI와 보안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 원하는 인물 찍으면 AI가 알아서 따라간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눈에 띄는 기능은 마이 팬캠(My FanCam)이다. 촬영한 영상에서 원하는 인물을 선택하면 AI가 움직임을 따라가 화면 중앙에 맞춰준다. 아이의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처럼 움직임이 많은 영상에서도 별도 편집 없이 원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영상을 만들 수 있다.



One UI 9 마이팬캠 기능.

/삼성전자

‘나우 브리프(Now Brief)’에는 자주 확인하는 정보를 직접 구성하는 ‘나만의 카드’가 추가됐다. 건강과 날씨, 영상 등 필요한 정보를 원하는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나우 너지(Now Nudge)’는 갤럭시 사용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기능을 제안한다. 메시지로 약속을 잡을 때 예약정보를 불러오거나 대화 중 공유된 위치를 저장하는 방식이다.

통역 기능에는 이전 대화 흐름을 확인하는 ‘스레드 뷰’가 추가됐다. 대화 모드의 번역 속도를 높이고 갤럭시 버즈를 이용할 때 번역 음성을 들려주는 시간도 줄였다.

‘보증 및 케어(Warranty and Care)’에서는 보증 기간과 예상 수리비를 확인할 수 있다. 자가 진단과 삼성케어플러스 관리, 서비스센터 예약도 한곳에서 할 수 있다.

◆ 개인정보 위험 감지… AI 변조 음성도 분석

삼성전자는 One UI 9에서 보안 기능

도 강화했다. ‘시큐리티브리프(Security Brief)’는 악성 앱과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불필요한 권한 사용 등 보안·개인정보 문제를 주기적으로 요약해 보여준다.

온디바이스 AI 기반 ‘개인정보 보호 알림(Privacy Alerts)’은 불필요한 권한 접근 시도 등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감지해 사용자에게 미리 알려준다.

악성 앱 대응 범위도 넓어졌다. 삼성전자는 2024년부터 One UI 6.1 이상 갤럭시 기기에서 피싱 앱 설치를 차단해왔다. 삼성전자 뉴스룸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One UI 9에서는 악성 앱으로 확인된 앱의 실행까지 차단하고 삭제할 권고한다.

보이스피싱 대응도 강화했다. 삼성전자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알림’은 일본과 캐나다, 인도 등으로 지원 국가를 확대한다. 국내에서는 상대방 목소리의 AI 변조 여부를 분석해 조작 징후가 감지되면 팝업과 알림음, 진동으로 사용자에게 경고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김현제 원장 “AI·DX 전력수요 대응 시급”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세미나

글로벌 에너지 시장 현안 논의

국내의 전문가들이 지정학적 갈등과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려면 에너지 안보 정책을 가격과 물량 중심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과 안정적인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17일 개원 40주년을 맞아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에너지·기후·번영의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러시아산 가스의 유럽 공급 중단 등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직면한 위험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기후변화 대응, 지속적인 번영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과제”라며 “지정학적 불안과 인공지능·디지털 전환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할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파티 비를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에너지 안보를 좌우할 핵심 기준으로 공급망에 대한 ‘신뢰’를 제시했다. 비를 사무총장은 “오늘날 에너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석



파티 비를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이 17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에너지경제연구원 창립 40주년 기념 정책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유나 가스, 우리늄, 리튬이 아니라 신뢰”라며 “각국은 가격뿐 아니라 공급자가 신뢰할 수 있는 상대인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에 집중된 에너지 공급 구조를 완화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토시유키 사카모토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IEEJ) 총괄이사는 에너지 조달처와 수송 경로를 다변화하고 비축을 확대해야 하지만, 시장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카모토이사는 “석유비축 확대와 우회 수송로 확보, 핵심광물의 대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강력한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관희 기자

한화에어로, 아리온스멧 등 무기 무인화 속도

K9·천무 등 유무인복합 기술 적용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우리군 최초의 다목적무인차량 아리온스멧을 앞세워 지상무기 무인화에 속도를 낸다. 오는 2030년까지 소형부터 대형까지 무인지상차량 라인업을 갖추고 K9 자주포와 천무 등 기존 주력 무기에도 유무인 복합 기술을 적용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다목적무인차량 ‘아리온스멧(Arion-SMET)’의 생산 체계 구축·가동 계획과 지상방산 무인화 로드맵을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아리온스멧은 지난 4일 방위사업청과 양산계약을 체결했다. 내년부터 육군과 해병대 보병부대에 순차 납품된다. 천무와 천궁-II, L-SAM 발사대 등을 생산하는 창원사업장에서 양산한다.

아리온스멧을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소형·중형·대형 무인지상차량(UGV) 공통플랫폼 6종을 확보한다. 10t 미만 다목적무인차량과 20t 미만 궤도형 로봇전투차량(T-RCV), 30t급 대형 무인전투차량(H-UGV) 등이 포함된다.

기존 유인 무기체계의 유무인 전환도 추진한다. K9과 천무,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를 필요에 따라 무인으로 운용할 수 있는 선택적 유무인체계로 오는 2029년까지 전환한다는 목표다. 120mm 자주박격포와 상륙돌격장갑차(KAAV), 한국형 공병전투차량(K-CEV) 등에도 유무인 복합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무인체계 개발 범위도 넓히고 있다. 폭발물 탐지제거로봇은 현재 양산 중이다. 무인수색차량과 드론·로봇을 탑재한 AI 기반 K-CEV, 유무인 복합 화생방정찰차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

해외시장도 공략한다. 아리온스멧은 루마니아와 핀란드, 캐나다 등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김동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S사업부장은 “최고의 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 군과 우방국이 필요로 하는 무인차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선제적으로 미래 전장에 대비한 국방 무인체계 선도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기술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유혜온 기자 dhalehale

효성중공업

HVDC 국산화 설비 선풍

효성중공업이 한전의 대용량 전압형 초고압직류송전(HVDC) 국산화 사업에 투입할 핵심 설비를 공개했다. 독자 개발한 밸브와 제어기를 앞세워 대용량 전력망 구축에 필요한 HVDC 기술 자립에 나선다.

효성중공업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서 자체 개발한 HVDC 밸브와 제어기 등 핵심 설비를 선보였다고 17일 밝혔다.

밸브와 제어기는 전압형 HVDC의 성능과 안정적인 운전을 좌우하는 핵심 설비다. 컨버터 밸브는 전력반도체를 이용해 교류(AC)와 직류(DC)를 변환한다. 제어기는 전력의 크기와 방향을 조절하고 계통 이상 발생 시 전력망을 보호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다른 차세대 전력 솔루션도 소개했다. AI 기반 전력설비 자산관리 플랫폼 ‘ARMOUR+’와 자전력변성기(LPIT), 무효전력보상장치(STATCOM), 전력반도체 기반 솔리드스테이트변압기(SST), 수소연전발전기 등을 선보였다.

효성중공업 관계자는 “핵심 전력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해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등 국내 대용량 전력망 구축을 뒷받침하고 글로벌 HVDC 시장에서도 수출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혜온 기자

한화, 글로벌 대공망 사업 박차

UAE 국영방산기업 JV 설립 추진
중동·제3국 방산시장 공략 본격화

한화아바타에미리트(UAE) 최대 국영 방산기업 에지(EDGE)그룹과 현지 합작법인(JV) 설립을 추진하며 UAE 통합대공망 구축과 중동·제3국 방산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17일 한화시스템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 15일(현지시간) UAE 아부다비 에지 그룹 본사에서 UAE 통합대공망 구축사업을 위한 주요조건합의서(Term Sheet)를 체결했다.

합의서에는 통합대공망 구축을 위한 무기체계 도입 방향과 단계별 검토 사항이 담겼다. 양사는 양국 정부의 방산 협력 방향에 맞춰 세부 사업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정부 승인과 협의 절차를 거쳐 현지 합작법인 설립과 생산·사업 운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UAE 내 방산 생산과 유지·보수 역량을 높이기 위한 현지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한화는 중동 지역에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 ‘천궁-II’의 다기능레이더와 발사대·발사관·탄 구성품 등을 공급하며 대공방어 분야에서 사업 기반을 확보해 왔다. 2022년 UAE를 시작으로 2024년 사우디아라비아, 2025년 이라크에 한화



양기원 한화시스템 대표(왼쪽)와 하마드 알 마라르(Hamad Al Marar) 에지 그룹 CEO가 지난 15일(현지 시간) UAE 아부다비 에지그룹 본사에서 통합대공망 구축사업에 대한 주요조건합의서를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화

시스템의 다기능레이더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발사대·발사관·탄 구성품 등을 공급했다.

한화는 에지그룹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통합대공망 사업의 참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장거리·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를 중심으로 대드론체계(C-UAS)와 단거리 방공체계를 연계하고 천무 다연장로켓을 비롯한 지상무기 체계와의 연동도 추진한다. UAE는 한화의 중동 및 제3국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된다. UAE의 산업 기반과 한화의 방산 기술을 결합해 현지 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공동 사업 기회를 발굴할 예정이다.

/원관희 기자 wkh@

LG전자, ‘구독이득’ IMC 캠페인 전개

(전방위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LG전자가 전문가의 정기적인 관리를 앞세워 가전 구독 서비스의 차별화된 가치 알리기에 나선다.

LG전자는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전방위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IMC)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가전 구독을 단순히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 아닌,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제품을 관리하는 서비스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가전은 전문가가 받는 구독이 득이라는 메

시지를 통해 가전을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전문가에게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구독의 이점을 고객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전달한다.

이를 위해 영상 등 콘텐츠에 내시경 카메라 점검, 직수·고압 세척, 스팀 살균, 기계실 분해 세척, 제품 코팅·광택 등 전문 장비를 이용한 케어 서비스부터 무상 AS·철거·재설치, 정품 소모품 교체까지 구독 미이용 고객들이 그간 알지 못했던 전방위 서비스의 모습을 자세히 담았다.

/차현정 기자 hyeon@

‘추석 대목 두렵다’… 中企 10곳 중 4곳 “자금사정 더 나빠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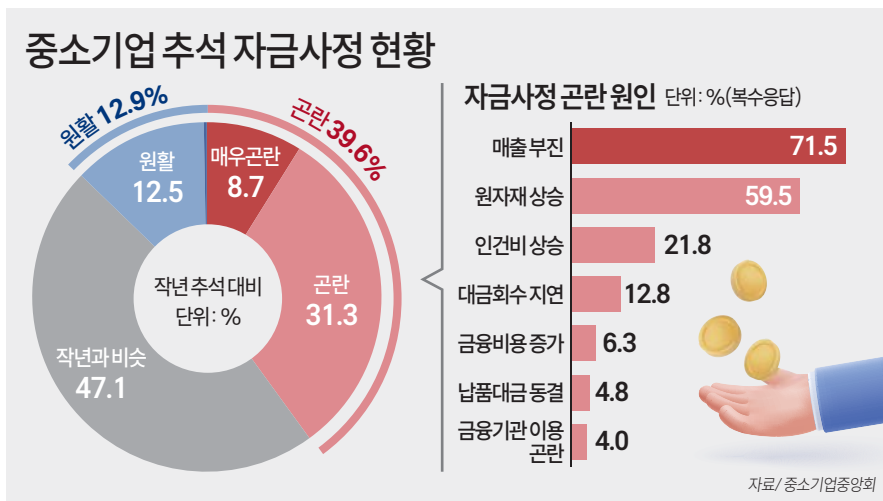
중기중앙회, 1000곳 설문조사
40% “자금사정 곤란” 원할 13% 그쳐
판매부진·원부자재값 상승 주원인
기업당 추석 필요자금 2억5645만원
필요자금 23% 부족차입 등으로 중당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은 45.1%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지난해보다 올해 추석 자금 사정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당 이번 추석에 평균 2억5645만원이 필요한 가운데 5848만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10곳 중 8곳 이상이 추석 공휴일 외에 추가 휴무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곳 중 1곳 정도만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이 있었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2026년 중소기업



업 추석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해 17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에 비해 올 추석 자금사정이 '곤란하다'는 답변은 40%로, '원할하다' (12.9%)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작년과 다르지 않다'는 47.1%였다.

'자금사정 곤란 원인' (복수응답)으로는 '판매·매출부진'이 71.5%로 가장 많은 가운데 ▲원·부자재가격 상승(59.5%) ▲인건비 상승(21.8%) ▲판매대금 회수 지연(12.8%) 순으로 많았다.

추석때 필요자금의 약 23%가 부족한 가운데 기업들은 ▲납품대금 조기회수

(40.6%) ▲금융기관 차입(38.3%) ▲결제 연기(29.9%) 등을 통해 융통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은행 등 금융권 차입 여건은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이 지난해 추석 대비 '곤란하다'는 응답이 27%로 '원할하다'는 응답(12.6%)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작년과 다르지 않다'는 60.4%였다.

이런 가운데 추석상여금 지급계획에 대해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절반에 살짝 못미치는 45.1%였다. 이외에 '미지급'은 38.5%, '결정하지 못함'은 16.4%였다.

상여금 지급수준은 정률지급의 경우 기본급의 37.7%, 정액지급은 평균 66만 5000원으로 집계됐다.

추석 추가 휴무계획에 대해서 전체 기업 중 85.1%가 추석 공휴일 외에 '별도 휴

무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추가 휴무계획이 있는 기업(14.9%)조차 평균 추가 휴무일은 반나절 수준인 0.4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김희중 경제정책본부장은 "지속되는 내수 침체와 고금리 기조 속에서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은 명절 상여금 지급에 대한 부담은 물론 단기 운영 자금 확보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부족한 명절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납품대금 조기 회수에 나서는 것은 물론, 결제 대금 지급 연기까지 고려할 만큼 중소기업의 자금 압박이 극심한 상황인 만큼 자금난이 연쇄 부실로 이어지지 않고 전통시장 상인 등 취약 부문까지 정책 온기가 신속히 닿을 수 있도록 금융권의 각별한 관심과 선제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삼성, '맞춤 AI가전'으로 인도 시장 넓힌다

무풍 냉방·수면·가족돌봄 강화
스마트싱스 기반 현지 맞춤 공략
인도 넘어 중남미 맞춤 전략 확대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현지 생활환경에 맞춘 인공지능(AI) 가전을 앞세워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고온다습한 기후와 가족 중심 문화를 반영한 기능을 내세워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인도 구루그람에서 글로벌 가전 테크세미나 '더 브리프(The Brief)'를 열고 2026년형 AI 가전을 선보였다고 17일 밝혔다.

인도는 삼성전자의 주요 가전 시장 중 하나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인도 냉장가전 시장에서 판매량 기준 22%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 LG 전자(21%)와 월풀(17%)이 뒤를 이었다.

삼성전자는 올해 인도 진출 30주년을 맞아 AI 가전을 앞세워 현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스마트싱스를 기반으로 가사 부담을 줄이고 가족의 일상까지 살피는 '일상 속 AI 동반자' 전략을 강조했다.



16일 인도 구루그람에서 열린 삼성전자 가전 테크세미나 '더 브리프(The Brief)'에서 참석자들이 현지에서 특화한 AI 가전과 AI Home을 체험하고 있다. /삼성전자

◆무더위엔 무풍, 부모 안부까지 챙기는 AI

인도 특유의 기후를 겨냥한 냉방 기술도 선보였다. '비스포크 AI 무풍 프로'는 송풍 날개인 '모션 블레이드'를 활용해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5가지로 조절한다.

갤럭시 위치와 갤럭시 링을 연동한 '웨어러블 굿슬립'은 사용자의 수면 단계와 체온 변화에 따라 에어컨을 조절한다. AI 에너지 모드를 사용하면 에너지 소비량을

최대 30% 줄일 수 있다.

AI는 가족 돌봄에도 활용된다.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에서는 사용자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나우 브리프'를 이용할 수 있다. '패밀리 케어'는 떨어져 사는 부모의 가전 사용 패턴을 확인해 일정 시간 활동이 없으면 가족에게 알람을 보낸다.

제품 관리도 원격으로 지원한다. '스마트싱스 홈케어'는 가전 상태를 확인해 필터 교체나 청소 시기를 알려준다.

◆인도 이어 중남미… 지역별 생활환경 맞춘다

삼성전자의 현지 맞춤형 AI 가전 전략은 중남미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브라질 상파울루에 이어 이달 9일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도 현지 주요 매체와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더 브리프'를 열었다.

중남미에서는 에너지 절감과 가사 부담을 줄이는 기능을 앞세웠다. 무풍 AI 에어컨은 사용 패턴에 맞춰 냉방을 조절하고, 세탁·건조 제품은 세탁물의 오염도를 감지해 세탁 과정과 물·세제 사용량을 조절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포스코, 위험·반복 업무 로봇으로 대체

외벽·로비·주차장 청소로봇 투입
서빙로봇까지 도입 안전·효율 강화

포스코가 서울 포스코센터에 청소·서빙 로봇을 도입했다. 외벽과 실내 청소, 음료 배달 등 시설관리 곳곳에 로봇을 적용해 작업자 안전과 운영 효율을 높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포스코와 이드와 함께 포스코센터에 로봇 기반 시설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위험도가 높거나 반복적인 작업을 로봇으로 대체하고 작업자는 다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는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포스코센터 외벽과 로비, 지하 주차장 등에서 청소로봇 실증 테스트를 진행했다. 4월에는 중국 상하이 청소박람회를 찾아 글로벌 기술 동향과 적용 사례를 살펴보고 도입 기종을 검토했다.

외벽 청소에는 지난 5일부터 국내 최초로 로봇을 투입했다. 포스코센터 저층부 로비 구간에서 테스트를 거쳐 외벽 커튼 월(Curtain Wall) 유리 청소에 적용했다.

고층 건물 외벽 청소는 작업자가 로프나 곤돌라 등 고소작업 장비에 의존해야 한



포스코센터 로비 청소로봇. /포스코

다. 추락이나 장비 고장 위험이 있고 기상 변화에 따른 균형 상실과 자재 낙하 가능성도 있다. 로봇 투입으로 작업자가 직접 고소 작업에 나서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건물 로비와 지하 주차장에도 청소로봇을 배치했다. 로비용 로봇은 한 번 충전하면 약 3~4시간 동안 300평을 청소할 수 있다. 주차장용 로봇은 최대 8시간 동안 약 600평을 청소한다. 미화 작업자의 노동 강도와 야간 반복 작업을 줄이는 동시에 시설 청결도와 운영 효율을 높인다.

포스코센터 비즈니스 라운지에는 서빙로봇 3대를 투입했다. 음료 배달용 2대와 빈 컵 회수용 1대가 하루 평균 100여건의 주문을 처리한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타이어3사, 전기차 교체용 타이어 경쟁 가열

5~6년차 전기차 10만대 교체수요 진입

2020~2021년 등록된 국내 승용 전기차 가 올해로 5~6년차에 접어들면서 교체용(RE) 타이어 시장이 본격적인 성장 구간에 들어서고 있다. 2022~2023년 판매 차량까지 뒤따르면서 향후 교체 수요도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동차등록 현황보고에 따르면 국내 승용 전기차 신규등록은 2020년 3만1333대, 2021년 7만 1529대로 두 해 합계 10만2862대다. 등록 연도를 기준으로 올해 차량 5~6년 구간에 해당하는 차량들이다.

같은 방식으로 내년에는 2021~2022년 등록 차량 19만5471대, 2028년에는 2022~2023년 등록 차량 23만9775대가 차량 5~6

년에 들어선다. 올해 10만대 수준인 잠재 차량군이 2년 뒤 24만대 안팎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이는 과거 신규등록 규모를 기준으로 한 잠재 차량군으로, 실제 타이어 교체 대수와는 차이가 있다. 폐차·수출·말소 여부와 주행거리, 마모·노화 상태 등에 따라 차량별 교체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삼성KPMG는 최근 '글로벌 탑티어로 란딩을 준비하는 K-타이어' 보고서에서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된 지 5~6년이 지나면서 신차용(OE)으로 장착된 타이어의 교체 수요가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초 교체 고객과 반복 교체 고객을 구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타이어업체 입장에서는 교체시장의 중요성이 크다. 신차용 타이어는 완성차 업

체와의 공급계약을 통해 장악되지만, 교체 시점부터는 차량 소유자가 가격과 성능, 브랜드 등을 비교해 직접 제품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신차용 공급 경쟁에 이어 소비자를 직접 확보하는 시장이 커지는 셈이다. 전기차용 타이어는 배터리에 따른 추가 하중과 모터의 강한 순간 토크에 대응해야 한다. 엔진 소음이 적어 타이어 소음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고 주행거리 확보를 위한 회전저항 관리도 중요하다. 이에 타이어업체들은 내마모성과 정숙성, 효율 등을 강화한 전기차 대응 제품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전기차 전용 브랜드 '아이온(iON)', 금호타이어는 전기차 특화 브랜드 '이노비(EnnoV)'를 운영하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엔페라 슈퍼EV 루트'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승혁 기자 sh95@

K-제약바이오 혁신기업 육성 지원 강화

중기부, 복지부와 현장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가 보건복지부와 'K-제약·바이오' 분야 혁신기업을 추가로 육성한다.

중기부는 복지부와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루닛에서 '제약바이오 중소벤처기업 현장 간담회'를 열고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 육성방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제약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의 애로를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과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을 비롯해 신약개발, 디지털헬스·의료기기, 바이오소재·생산기술 분야 중소벤처기업 대표 8명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자리에선 특히 신약개발의 경우

후보물질 발굴·개발 → 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계획(IND) 준비·승인 → 임상 1상 → 임상 2상 → 임상 3상 → 품목허가·사업화로 이어지는 장기간의 개발과정을 거치는 만큼 단계별로 필요한 연구개발(R&D)·임상·투자·사업화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 등에 의견을 나눴다.

현장에서 후보물질 개발 단계 및 비임상 단계에선 기술개발 및 시험·검증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임상단계로 진입할수록 대규모 자금과 전문인력, 병원·임상기관 등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임상 이후에도 품목허가, 기술이전, 후속투자 및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기업의 성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승호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SK스토아 매각 제동... SKT, 'AI 전환' 걸림돌

라포랩스와 계약 조건 손질
지분 전부 매각 계획 철회하고
일정 지분 보유 구조로 변경
자금 회수 줄고 리스크 늘어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컴파니' 전환을 위한 사업 구조 재편에 속도를 내면서 자회사인 SK스토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인수자의 자금조달 능력 등을 이유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승인 심사에서 제동이 걸려 매각 작업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17일 정보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근 커머스 스타트업 라포랩스와 SK스토아 계약건을 두고 조건을 손질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SK스토아의 지분 전부 매각 계획을 철회하고 일정 지분은 보유하는 구조로 변경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라포랩스와 약 1100억원 규모의 SK스토아 지분 전부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SK스토아는 SK텔레콤의 완전 자회사로, 녹화 방송 기반의 데이터쇼핑 서비스를 운영한다. 한 때는 코로나19 특수를 누리며 SK텔레콤의 현금 창출원 역할을 한 효자 자회사이기도 했다.

인수 발표 당시 시장에서는 SK스토아



정재현 SKT 대표이사가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모두의 AI 프로젝트 착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의 핵심 고객층이 라포랩스의 주력 고객과 일치한다는 이유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라포랩스는 패션 플랫폼 '윈잇'을 통해 모바일 쇼핑 시장에서 소위된 4050 여성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연 매출 3000억원대 대기업 계열사가 적자 구조를 해소하지 못한 스타트업에 매각하는 것을 우려했다. 무리한 인수합병(M&A)이 결국 SK스토아의 유동성 위기를 낳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홈쇼핑과 같이 방송법 규제를 받는 방송사업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최종 승인 없이는 매각을 통한 소

유권 이전이 불가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 정부의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자, 라포랩스가 자발적으로 인수 승인 신청을 취하하고 거래 구조를 바꾸는데 합의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라포랩스의 재정 건전성 우려를 의식해 무차입을 재원 조달을 유지하고, SK텔레콤은 일부 지분을 유지해 경영 안전성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이달 방미통위에 SK스토아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을 마친 상태다.

SK텔레콤이 소수 지분을 남기게 될 경우 자금 회수 규모는 1100억원 보다 낮아

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SK스토아의 수 많은 중소 협력사들을 상대로 불공정 거래 등 리스크를 모회사로서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부담도 발생한다.

SK브로드밴드(SK스토아 지부) 노동조합원들의 반발도 부담이다. 노조원들은 지난 8월 규탄 시위에서 라포랩스계약 파기 요구와 함께 경영 관여 의혹 등을 방미통위가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실제로 라포랩스의 최희민 공동대표는 SK텔레콤 출신으로 밀어주기식 특혜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회사 측은 억측이라며 선을 그었다. 또한 노조원들은 SK스토아 매각을 두고 일제히 SK텔레콤이 계열사 숫자를 줄이려는 졸속 매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SK스토아 매각은 최근 단행하는 AI 중심의 사업 구조 재편에도 걸림돌이다. SK텔레콤은 최근 AI 폴스택 기업으로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 글로벌 자본과 결합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다. 지난 8월 AI 데이터센터와 해저케이블 사업을 전담하는 SK호라이즌을 신설했다. 이에 앞서 약 7500억원의 자본이 투입된 'SK하이퍼'를 설립해 AI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현금을 투자하고 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도쿄게임쇼 2026



성준호 스마일게이트 대표(왼쪽)와 스마일게이트 이노주 마케팅 이사가 17일 일본 지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린 '도쿄게임쇼 2026(TGS 2026)'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최빛나 기자

스마일게이트 성준호 대표, 현장서 신작 2종 반응 살펴

성준호 스마일게이트 대표가 '도쿄게임쇼 2026(TGS 2026)' 현장을 찾아 올해 선보인 신작 2종에 대한 현지 이용자들의 반응을 직접 살폈다.

17일 일본 지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린 TGS 2026 현장에서 만난 성준호 대표는 올해 출품한 신작 시연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직접 확인했다며 일본 시장에서 장기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 대표는 "일본은 세계 3위 규모의 게임 시장이자, 소니·닌텐도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세계적인 개발사들이 자리한 게임 산업의 중심지 중 하나"라며 "스마일게이트의 글로벌 사업 확대에 있어서도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현장에서 신작 시연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일본 이용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마일게이트는 올해 TGS에서 신작 '마래시: 보이지 않는 마래'와 '데드 어카운트: 두 개의 푸른 불꽃'을 선보였다. 두 작품 모두 현장에 시연 공간을 마련해 관객들이 직접 게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도쿄(일본)=최빛나 기자

엔씨 아스트라에 오라티오 예측·설계 재미 강조

임종규다나미스원 게임디렉터(GD)가 17일 일본 지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린 '도쿄게임쇼(TGS) 2026' 미디어 프리뷰에서 신작 '아스트라에 오라티오'의 전투 시스템에 대해 "반사신경을 발휘하는 게임이 아니라 예측하고 설계하는 재미를 강조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에 오라티오는 엔씨가 퍼블리싱하고 다나미스원이 개발 중인 신전기 마법 RPG다. 가상의 역사 속 도표를 배경으로 정체를 감추고 살아가는 마법사와 아이들을 관리하는 기관 '특구청'의 이야기 그린다.

핵심 차별점은 턴제와 실시간 전투의 결합이다. 적의 다음 행동을 파악한 뒤 스킬과 캐릭터를 선택해 대응하는 방식으로, 반사신경보다 예측과 전략에 무게를 뒀다.

게임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서브컬처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도표를 무대로 택한 것도 장르적 선택이다.

/도쿄(일본)=최빛나 기자

KT, 전북에 다크팩토리 구축 “채팅플러스 PC버전 쓰고 경품 받으세요”

과기부 과제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
모듈형 엣지 AIDC서 '심 레디' 구현

KT가 정부와 제조 AX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K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AI 기반 다크팩토리 설계·구축 솔루션 개발' 과제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업지능 피지컬AI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사업 세부 과제 중 하나다. 사업 목적은 전북혁신도시 인근에 다크팩토리 인프라를 구현하는 것으로, 연구진은 KT를 비롯해 카이스트, LG에너지솔루션, 하림산업, 신성이엔지, 한국생산성본부 등이 참여한다.

KT는 이번 사업에서 모듈형 엣지 AIDC 인프라 기반에서 심 레디를 구현하고, 디지털 합성 데이터 생성·검증 체계 및 에이전트 운영통합 환경도 연구·개발

한다.

시뮬레이션 레디로 통하는 '심 레디'는 피지컬 AI, 로보틱스 분야에서 핵심 요소로 주목받는 3D 데이터다. 이번 연구를 통해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학습한 AI 에이전트가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오류들을 해소하는 게 목표다. 또 다크팩토리 환경에서 필수 운용 환경, 관제 체계 구축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향후 KT는 사업 참여 기업의 제조 현장에서 모듈형 엣지 AI 데이터센터와 다크팩토리 운영을 위한 통합 플랫폼 실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데이터와 학습 모델의 상호작용을 통한 성능 개선 구조를 뜻하는 데이터 플라이휠도 실증에 포함된다.

또한 실증을 통해 쌓은 역량을 산업 맞춤형 피지컬 AI 솔루션으로 상품화할 예정이다. 글로벌 AX 경험을 토대로 해외 제조 AI 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SKT, 내달 16일까지 추천·설치 행사
총 2000만원 상당의 경품 제공

SK텔레콤은 다음달 16일까지 채팅플러스 PC버전 추천·설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채팅플러스 PC버전은 SK텔레콤과 삼성전자가 공동 개발한 PC용 문자 메시지 서비스다.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SK텔레콤 고객은 PC에서도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다. 상대방이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채팅플러스 PC버전 이용 고객 약 500명 중 84%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일주일당 평균 5일 이상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는 응답자

는 83%에 달했다.

또한 키보드를 활용한 문자 작성의 편리함과 스마트폰과의 메시지 연동, 다른 PC작업과 병행 등 편의성을 주요 강점으로 꼽았다.

이에 SK텔레콤은 총 2000만원 상당의 경품 이벤트를 마련했다. 행사는 추천, 설치 총 2가지로 나뉜다. 추천 이벤트는 신규 고객에게 이벤트 페이지에서 받은 전용 URL을 공유하고, 추천을 받은 고객은 이벤트에 응모한 뒤 PC 프로그램 설치와 휴대폰 연동을 완료하면 된다.

설치 이벤트는 채팅플러스 PC버전을 처음 이용하는 고객이 이벤트에 응모한 뒤 PC 프로그램 설치와 휴대폰 연동을 완료하면 된다. /조민선 기자

LG U+ 임직원, 국제기능올림픽 감독 맡아

클라우드컴퓨팅 종목 대표 감독

LG유플러스는 중국에서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에 자사 임직원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참가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제기능올림픽은 2년마다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술인 경연대회다. 올해는 이달 22일부터 27일까지 중국 상하이 국가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전 세계 70여개 국가·지역에서 선수와 국제지도위원 등 약 14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종목은 정보통신기술(ICT), 기계, 건설 등 64개다.

클라우드컴퓨팅 종목에서는 참가자가 제한된 시간 안에 클라우드 환경에서 IT 인프라를 설계·구축·운영하는 능력을 겨룬다. 각국 대표 선수는 4일 간 매일 다른 과



제를 수행하며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순위를 겨룬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캐나다 등 17개 국가가 참여했다.

한국 국가대표 감독은 LG유플러스 U큐브 DAX팀 소속 배우혁 기술 책임(사진)이 맡는다. 배 책임이 클라우드컴퓨팅 국가대표팀을 맡는 건 올해로 세번째다. 특히 2024년 프랑스 라옹에서 열린 국제기능올림픽에서는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은메달을 획득하는데 기여했다. 이듬해 열린 아시아기능올림픽에서는 한국인 최초로 클라우드컴퓨팅 종목 심사장을 맡아 활약했다. 한편 올해 상하이 대회에서 한국은 20번째 종합우승에 도전한다.

/조민선 기자

카카오, 소액주주 인적분할 청사진 제시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 목표”

카카오가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인적분할 추진 배경과 향후 성장 전략을 설명하고,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카카오는 지난 16일 소액주주 대상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인적분할의 추진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분할 이후 카카오AI와 카카오X의 비전 및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카카오는 인적분할의 핵심 배경으로

'인공지능(AI) 시대에 부합하는 실행 속도 확보'와 '최적의 자본 배분 체계 구축'을 꼽았다. 특성과 성장 단계가 다른 사업을 분리해 각 회사가 핵심 성장 과제에 집중하고 의사결정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도영 카카오X 대표이사 내정자는 “이번 인적분할의 목적은 각 사업 부문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의사결정을 효율화하며 각 사가 보유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금융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은행·증권 ‘실적주의’ 정조준

금감원, 소비자보호 성과 점검
은행 현장검사 통해 KPI 개선 압박
펀드 가입서류 17→10종 통폐합
AI ‘ASAP’로 보이스피싱 피해 줄여

금융감독원이 지난 1년간 금융소비자 보호를 감독업무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추진한 성과를 공개했다. 금융상품 판매 이후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품의 설계·판매 단계부터 위험을 차단하는 ‘사전예방적 감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범죄·디지털 위험 대응에도 나섰다.

다만 대규모 펀드 가입 절차 간소화와 민생금융범죄 차단 등에서는 가시적 성과를 거뒀으나, 여전히 금융 현장에는 소비자 이익보다 핵심성과지표(KPI)를 우선하는 ‘단기실적주의’가 잔존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자본시장의 쇄신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일반 금융소비자와 금융업계·유관기관, 외부 전문가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9월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 이후 추진해 온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의 성과를 국민에게 보고하고, 금융소비자와 전문가들의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보완과 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여전한 단기실적주의”... 은행·증권 사 낚은 관행 지적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모두발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뉴시스

을 통해 “민원·분쟁이 계속 증가하고, 시장에는 단기실적 중심의 영업 관행이 지속되는 등 아직은 소비자보호가 금융회사의 업무와 경영문화에 충분히 내재화되지 못했다”며 “소비자가 금융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진정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본시장과 연계된 은행과 증권업계의 낡은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금감원은 은행권 상장지수펀드(ETF) 신탁과 관련해 전체 거래의 94.6%가 6개월 내 매도되는 단기 거래임에도 단기 매매에 불리한 선취수수료 부과 비중이 91.7%에 달하는 ‘수수료 미스매칭’ 실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주요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통해 성과평가체계(KPI) 개선을 직접적으로 압박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증권업계를 향한 핀셋 규제도 꺼내 들었다. 미성

년자에 대한 레버리지 상품 권유 및 미수 거래를 원천 제한하고, 고령 투자자에 대한 추가 확인서 징구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더불어 증권사의 산정 기준이 불명확한 대출금리와 예탁금 이용료, 반대매매 고지 절차 등 민감한 수익원과 직결된 영업 관행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무위 간사)은 축사를 통해 “금융상품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비대면 판매 확대로 소비자 위험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와 피해발생 시 신속·공정한 구제,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경무위 간사)은 “국민의 일상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융소비자보호는 곧 국민의 삶과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며 “소

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예방하는 사전예방 중심의 금융감독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조직·상품·피해구제 전방위 개선...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

금감원은 이날 소비자 중심의 조직개편과 상품 생애주기별 사전예방 감독체계 구축, 민생금융범죄 대응, 서민·취약계층 지원, 디지털 감독 인프라 확충 등을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우선 감독·검사·분쟁조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보호를 임직원의 핵심 감독과제로 전환했다.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와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운영해 소비자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하는 한편 전담부서 신설과 인력 확대 등 피해구제 기반도 확충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민원·분쟁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 가운데 총 94건을 제도개선 등으로 연계했다. 대표적으로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할부로 결제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같은 유형의 피해 1만1696건에 대해 총 132억 2000만원 규모의 처리기준을 제시했다.

상품 생애주기별 예방망도 구축했다. 금감원은 펀드 등 투자성 상품 가입 시 17종에 달하던 서류를 10종으로 통폐합하고, 17회에 달하던 서명 횟수를 3~6회로 대폭 줄였다. 이를 통해 통상 1시간 이상 소요되던 가입 시간을 30~40분 내외로 단

축하는 체감형 제도를 마련했다.

더불어 불합리한 금리·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금융관행과 거래절차 개선했다.

◆ ‘민생 특사경’ 띄우고 ‘AI 포털’ 가동... 감독 역량 총동원

민생금융범죄 대응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분석 AI 플랫폼 ‘ASAP’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663억 6000만 원의 피해를 예방했다고 집계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지난해 10월 이후 10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5년 기준 1조 1137억원이었던 피해금액은 올해 7월 기준 6324억원으로 약 43% 줄어 들었다.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윈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보험사기에는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검토하고 있다.

디지털 금융환경에 대응한 감독체계도 강화했다. 지난 2월 통합관제시스템(FIRST)을 가동해 중대 사이버 위협을 조기에 식별·전파했으며, 4월에는 가상자산 호가·체결정보 등을 수집·분석하는 모니터링 시스템(ORBIT)을 구축했다. 지난 8월에는 불공정거래 의심 종목 등에 대한 AI 기반 시장감시 체계도 마련했다. 금융민원·분쟁 처리를 위한 AI 기반 종합포털은 내년 1월 정식 가동할 예정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거래 폭증에도 거래소 감시인력 줄었다

올해 국내 증시 사상 최고치 갱신
시장감시본부 인력 작년보다 9명 ↓

올해 국내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역대급 ‘불장’을 나타내며 거래가 급증했지만,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인력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인력은 지난해 말 128명에서 올해 8월 기준 119명으로 9명 줄었다.

시장감시본부 인력은 2022년 116명에서 2023년 117명, 2024년 124명으로 꾸준히 늘었으나 올해 8월 기준 감소세로 돌아섰다.

다만 불공정거래 심리를 직접 담당하는 심리요원은 올해 8월 기준 19명으로 지난 2022년 수준을 회복했다.

심리요원은 2022년 19명에서 2023년과 2024년 각각 18명, 작년에는 17명이었다.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및 심리업무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초동 조사 단계로, 이후 금융당국의 조사와 검찰·법원의 판단을 통해 위법 여부가 최종 확정되는 식이다.

거래소가 심리를 거쳐 금융당국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는 2022년 105건, 2023년 99건, 2024년 98건, 지난해 98건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총 64건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6월 11일 거래소를 찾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

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며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거래소는 시장감시본부 상무 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면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시장감시본부 아래 본부장보 2인 체제를 구성했다.

시장감시본부 인력도 늘렸지만, 휴직·연수 등으로 8월 기준 실제 인력은 119명에 그쳐 본부 전체 인원은 결과적으로 작년 말보다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거래소의 수수료 수입은 급증했다. 거래수수료 수입을 보면 작년 4507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만 6917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수입을 넘어섰다. /신하은 기자

퇴직연금 타고 개인 국채 투자 ‘활기’

9월 발행 예정액 2300억

정부가 이달부터 퇴직연금계좌를 통한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를 열어주면서 개인들의 국채 청약 규모가 눈에 띄게 늘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에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한 청약액은 1435억원으로 집계됐다. 청약은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됐으며, 신한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 등 3개 은행과 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KB증권·NH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를 통해 이뤄졌다.

퇴직연금계좌 청약의 대상이 된 채권은 10년물과 20년물이다. 재경부가 지난 달 말 발표한 9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계획에 따르면 10년물과 20년물은 각각 1100억원과, 65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었다.

이달 처음 도입된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는 최근 둔화했던 개인투자용 국

채 수요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2024년 6월 처음 도입된 개인투자용 국채는 도입 초반 3~4000억원대의 청약이 몰리며 흥행했으나, 금리 불확실성과 증시 랠리 등에 한동안 1000억원대 중반 수준에서 청약을 이어갔다.

지난 8월에는 1500억원 예정에 1300억원대 자금이 들어왔다. 7월에는 1600억원 예정에 1200억원대, 6월에는 2000억원 예정에 1400억원대 자금이 들어오며 한동안 모집 예정 금액을 채우지 못했다.

9월 개인투자용 국채의 전체 발행 예정액은 2300억원이다. 퇴직연금 계좌와 일반 개인투자 창구가 별도로 운영됐을 뿐, 발행 물량은 전체 한도 기준으로 관리됐다. 정부에서는 퇴직연금과 일반창구를 합쳐 9월 발행 예정 물량은 소화된 것으로 봤다. 세부적인 배정 결과는 중도 환매 결과를 포함해 오는 20일 발표될 예정이다. /신하은 기자

TIGER 미국 커버드콜 ETF 3조 돌파

미래에셋 2종, 개인 투자자 몰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S&P500타겟데일리커버드콜ETF’와 ‘TIGER 미국나스닥100타겟데일리커버드콜ETF’ 두 상품의 합산 순자산이 3조원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16일 기준 순자산은 각각 6501억원과 2조 4441억원으로, 두 상품이 합산 3조원을 넘어섰다.

두 상품은 만기가 짧은 데일리 옵션을 약 10% 수준으로만 매도하는 타겟데일리커버드콜 전략을 적용해, 기초지수 상승

의 약 90% 수준으로 참여하면서 동시에 월 단위 현금흐름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옵션 매도 비중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기초지수의 장기 성장성을 최대한 추종하면서도 안정적인 분배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TIGER 미국S&P500타겟데일리커버드콜ETF’는 16일 기준 순자산 6501억원 규모로, 상장 후 누적 개인 순매수 3787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에는 분배정책을 월말에서 월중으로 변경하고, 기존 옵션 프리미엄 수익에 더해 편입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익도 분배재원에 포함하도록 했다. S&P500의 장기 성장성과 정기적인 현금흐름을 함께 추구하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TIGER 미국나스닥100타겟데일리커버드콜ETF’는 순자산 2조 4441억원으로 국내 상장 해외 대표지수 커버드콜 ETF 가운데 최대 규모다. /신하은 기자

내부통제 이행 여부 확인 체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책임을 구체화하는 책무구조도가 실제 업무 과정에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는 관리체계가 강화되고 있다. 한양증권은 임원과 부서별 책무를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월별·분기별 점검을 통해 내부통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

는 체계를 마련했다.

한양증권은 ‘책무구조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서별 책무 이행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한양증권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자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6월에 도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했다. /신하은 기자

노사발전재단, 캄보디아 진출 기업 노동분쟁 대응책 모색

현지 노동법·노동환경 동향 공유
노동법상 쟁점·실무 정보 제공

12월부터 AI 활용 정보 서비스로
기업 정보 접근성·활용도 제고

노사발전재단이 캄보디아에 진출해 있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노동법 및 규제 정보 제공에 나섰다. 특히 이와 관련해 개최한 세미나 자리에 현지 정부관료 등을 초청했다. 이 나라의 노동·산업안전·환경 관련 제도 및 현장점검 체계가 지속적으로 바뀌는 데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

‘캄보디아 노동법 및 노동환경 동향’ 주제의 이 세미나는 17일(현지시간) 프놈펜에서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주최로 열렸다. 재단은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전문지원기관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연사로 나선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전문가 등은 현지의 최신 노동법·노동환경 정보를 공유했다.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관계자는 기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오른쪽)이 17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국내기업 경영지원 세미나’에 참석해 있다. /노사발전재단

업의 인사·노무관리 과정에서 주요하게 다루지는 노동법상 쟁점을 소개했다. 또 현지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점검에서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기업이 현지 규제와 점검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 정보를 제공했다.

전문가 발표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

가 기업의 노무관리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응과제 등이 공유됐다. 기업들이 당장의 법령 준수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노무관리 과제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왔다.

재단은 그간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현지 노동법과 제도 변화에 효과적으

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다. 국가별 노동법·노무관리 정보 제공, 인사·노무 상담, 현지 세미나 등이다. 이날 열린 세미나에서도 기업들이 실제 노무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세부 내용을 안내했다.

아울러 올해 12월부터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원에 나선다. 기업이 필요한 국가별 노동법과 노무관리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해외 노동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정보 접근성 및 활용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재단은 앞서 이달 16일에 캄보디아 한인상공회의소(KOCHAM)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재단의 노동분야 전문성과 KOCHAM의 현지기업 네트워크를 연계해 노무관리·노동분쟁 예방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와 간담회도 가졌다. 양 기관 간 기존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노동법 준

수와 안정적인 노무관리 지원을 위한 후속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재단은 ‘현지 노동정책·제도 변화 파악→최신 노동정보 제공→기업 애로사항·수요 청취→현지 관계기관과 연계한 후속 지원’으로 이어지는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 노동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 변화와 노동감각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현지 정부와 대사관, 경제단체 등과의 협력망을 활용해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겠다”며 “노무관리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을 지원하는 현장 밀착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수자원공사, 기후테크 스타트업 9곳 투자

‘물산업 투자기관 협의회’ 정기총회
민간 투자기관 참여 39곳으로 확대
현재까지 179개사에 1767억 투자

한국수자원공사가 민관 투자기관과 협력해 성장 단계에 접어든 혁신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공공 및 민간 39개 기관이 참여하는 ‘물산업 투자기관 협의회’ 정기총회와 유망기업 기업설명회(IR)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유망 스타트업에 실질적인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수자원공사의 지원으로 성장 궤도에 오른 유망 스타트업 9개사가 참여해 물 분야뿐만 아니라 에너지, 이차전지 등 연관 산업의 기후테크 혁신 기술을 선보여 참석 기관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물산업 투자기관 협의회는 유망기업 투자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한국수자원공사는 9월 15일~16일까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공공 및 민간 39개 기관이 참여하는 ‘물산업 투자기관 협의회’ 정기총회와 유망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수자원공사

2022년 12개 기관으로 출범한 이후 공공과 민간 벤처캐피탈(VC)의 참여가 이어지며 올해 39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됐다.

총회에서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방안과 함께 수자원공사가 출자한 벤처펀드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수자원공사는 2018년부터 총 13개 펀드에 1199억원을 출자했으며, 정부·지자체·VC 등과 손잡고 조성한 물산업 전용 투자 재원만 3552억원에 달한다. 현재까지 179개 기

업에 1767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한성용 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장은 “협의회를 통해 혁신 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연계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펀드의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다지고, 혁신 스타트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하여 국내 벤처 생태계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중부발전, 국내 첫 임직원 참여 ‘AI 에이전트 플랫폼’ 구축

자체 생성형 AI ‘하이코미’ 기반
반복 업무, 자연어 입력으로 루틴화

한국중부발전이 임직원이 직접 업무 자동화 기능을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하이코미 에이전트 플랫폼’을 구축해 17일부터 사내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용자가 업무 자동화 루틴을 직접 기획해 공유하고 재사용하는 방식의 플랫폼 운영은 국내 최초 사례다.

이번에 선보인 플랫폼은 한국중부발전의 자체 생성형 AI인 ‘하이코미’를 기반으로 구축됐다. 중부발전은 지난 2024년 12월 전력그룹사 최초로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사내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2025년 12월 실제 과업을 수행하는 행동형 AI 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AI 기술 도

입에 앞장서 왔다. 이번 플랫폼은 기존 서비스를 한 단계 고도화한 것으로, 임직원의 업무 자동화 노하우가 시스템에 축적되고 조직 전반으로 확산하는 ‘참여형 생태계’를 조성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새로운 플랫폼의 핵심 축은 ‘사용자 주도성’과 ‘공유’다. 코딩 지식이 없는 일반 직원이라도 자연어로 원하는 기능을 요청하기만 하면 AI 에이전트가 이를 분석해 즉각적인 결과를 제공한다. 특히 반복적인 업무를 자연어 입력만으로 ‘루틴(Routine)’화할 수 있으며, 실제 실행 시 에이전트가 사내 시스템에 접속해 필요한 절차를 스스로 수행한다.

이렇게 개인이 만든 결과물과 루틴은 플랫폼 내에서 자유롭게 공유된다. 활용 사례가 쌓일수록 플랫폼 전체의 기능과

업무 효율성이 함께 향상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춘 셈이다. 이를 위해 중부발전은 ▲AI의 시스템 화면 직접 조작 기능 ▲사내외 자료 스마트 검색 ▲내부 데이터 자동 추출 및 요약 등 최신 기술을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도록 플랫폼에 적용했다.

중부발전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피드백 반영과 활용 도구 확대를 통해 해당 플랫폼을 사내 대부분의 업무를 지원하는 범용 AI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이번 플랫폼을 통해 직원 개개인이 자동화의 주체가 되어 반복 업무를 줄이고 창의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 직원이 참여하는 디지털 혁신 문화를 조성해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직계가족 위해 실속형 명절 선물 구매”

농진청, 추석 선물 구매기준 설문

명절 선물 관련해, 과대 포장된 선물세트보다는 실속을 중시하는 소비자가 늘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소비자 2명 중 1명은 ‘가족’에게 줄 선물 구매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은 추석 농식품 소비변화 파악 및 농업경영체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수도권 거주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추석 선물 구매기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소비자가 가장 중요시하는 소비 가치는 ‘맛과 실속’ (45.9%)·‘시간과 삶의 질’ (39.4%) 순으로, 전체 응답자의 약 85%를 차지했다. 또 명절 과일 등 농산물도 한 번에 먹기 좋은 실속형 상품을 구매하는 게 가치 있다는 응답이 75.4%에 달했다.

명절 선물은 ‘직계가족 위주’로 한다는 응답이 47.3%였다. 가족에게 선물을 집중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형식적인 인사치레

보다 가족을 챙기는 소비가 더 의미 있어서’ (46.9%)라고 답했다. 구매 품목으로 신선·혼합 과일 세트(31.3%)와 건강기능식품(26.6%) 등을 선호했다.

이들의 58.3%는 추석 직전 한 번에 구매하기보다 추석 전후로 분산 구매한다고 답했다. 추석 1주일 전 구매액도 감소했다는 응답(38.5%)이 증가(28.6%)보다 높았다. 명절 이후 구매가 늘어난 소비자가운데 41.2%는 필요한 식품을 추석 이후 나눠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선물이나 음식 모두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구매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 추석 선물의 온라인 구매 비중은 10년 전 9.0%에서 최근 37.4%로 증가했다. 명절 음식 장보기도 온라인으로 한다는 비중이 2.0%에서 21.0%로 높아졌다. 온라인 이용 이유로는 ‘배송 편의성’을 가장 많이 꼽았다. 농진청은 가격뿐 아니라 편리함이 중요한 구매 기준이 됐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수자원공단, 어촌-소비자 직거래 지원

부산어촌특화센터, 지역 특화상품 개발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어촌지역 생산자의 유통단계 간소화 및 판로 확보 지원에 나섰다.

수산자원공단 부산어촌특화센터는 부산지역 어촌공동체가 생산한 수산물과 어촌특화상품에 대한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달 상순 부산시청에서 열린 ‘추석맞이 수산물 상생할인 직거래 장터’ 참여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추석맞이 수산물 상생할인 직거래 장터에는 부산지역 대변어촌계와 대항이레마을협동조합이 참여했다. 다시마와 멸치, 미역, 문어, 톳국수, 굴비 세트 등 어촌특화상품을 선보였다.

이 직거래장터는 어촌공동체가 생산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선보이고 판매한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지원 중인 직거래장터.

다. 유통단계를 줄이고 생산자의 실질적 소득 증대와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단 부산어촌특화센터는 대항이레마을협동조합과 함께 신규 어촌특화상품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기존 톳국수에 생면과 굴·바지락·문어 등 제철 수산물을 접목한 밀키트형 상품 개발을 검토 중이다. 제품 구성 및 상품화 방향을 구체화한 뒤 상품 완성도를 위해 10월 중 전문가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기업의 비즈니스를 더 특별하게

출장부터 기업행사까지, S&Miles가 함께합니다

기업 맞춤 MICE · 인센티브 전문 여행사 S&Miles



철강·금속 산업 전문성

산업 특성을 이해한 전문 노하우로
최적의 출장·행사 서비스 제공.



해외 네트워크

전 세계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기업 맞춤 일정 설계

목적과 예산에 맞춘 최적의 일정과
프로그램 설계



24시간 지원 서비스

현지 긴급 지원 및 상담 서비스로
안심 비즈니스 지원



현지 운영 지원

숙련된 현지 운영팀이 행사 전 과정
원활하게 관리

기업 맞춤 인센티브 투어

목적과 예산에 최적화된 맞춤형 프로그램



기업 골프 행사

기업의 목적에 맞는 골프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고객사 사은 행사

고객 관계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기획 및 운영을 지원합니다.



해외 워크숍·세미나

항공·호텔·회의·관광까지 원스톱으로
완벽하게 관리합니다.

기획 → 항공 → 호텔 → 현지 운영 → 귀국

ONE STOP 서비스!

2026 글로벌 산업 전시회

항공 + 호텔 + 여행자보험 패키지로 편리하게!



아시아 대표 금속가공 전시회

MWCS 2026
CIIF 동시 개최



상하이(Shanghai) · 중국

2026. 10.12(월)~10.16(금)

National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 (Shanghai)
국가전람중심 (NECC)

1인 129만 원~

4박 5일 기준 / 조건에 따라 변동



일본 최대 공작기계 전문 전시회

JIMTOF
2026



도쿄(Tokyo) · 일본

2026. 10.26(월)~10.31(토)

Tokyo Big Sight (도쿄 빅 사이트)
전시장 : 전관 (East & West Halls)

1인 155만 원~

5박 6일 기준 / 조건에 따라 변동



세계 밸브 산업의 중심

VALVE WORLD
EXPO 2026



뒤셀도르프(Düsseldorf) · 독일

2026. 12.01(화)~12.03(목)

Messe Düsseldorf
HALL 1 · HALL 3

1인 215만 원~

3박 4일 기준 / 조건에 따라 변동

상기 요금은 기준 출발일 및 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항공·호텔 예약 상황에 따라 실제 견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업전문 여행사

기업 출장 · 인센티브 · MICE S&Miles와 상담하세요!

맞춤 기획서 · 견적 무료 컨설팅!

☎ 02-3487-2800
@ smkang@snmiles.com
www.snmiles.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20



에스앤마일즈 여행사

외식비 부담에 구내식당 몰리자 급식업체 ‘고급화’로 승부

구내식당 수요 늘며 급식업체 혼풍
현대그린푸드 매출 전년비 8.4%↑
스테이크·프리미엄 과일로 차별화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외식비 부담을 느낀 직장인들이 구내식당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이에 발맞춰 주요 단체급식 업체들은 매출 성장을 이어가는 한편, 프리미엄 식재료와 인기 콘텐츠를 결합한 차별화 전략으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모바일 식권 서비스 ‘식신e-식권’에 따르면 2026년 2분기 전국 일반 식당 평균 점심값은 1만240원(서울 1만1586원)으로 집계돼 1분기에 이어 1만 원대를 유지했다. 반면 구내식당 평균 점심값은 7919원으로 일반 식당보다 약 2321원 저렴했다. 외식 물가 상승 속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내식당에 대한 선호 현상이 명확히 드러난 셈이다.

점심값 상승의 배경에는 외식 물가 오름세가 자리한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풀무원은 브랜드 협업과 식단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풀무원푸드엔컬처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 지역 김밥 평균 가격은 지난해 7월 3623원에서 올해 7월 3869원으로 1년 새 6.8% 올랐다. 김치찌개백반도 같은 기간 8577원에서 8654원으로 상승하며 8000원대 중반에 자리 잡았다.

외식비 상승에 따른 구내식당 수요 증가

와 단체급식 신규 수주 확대는 주요 급식 업체들의 상반기 실적 호조로 이어졌다.

올해 상반기 매출 기준 현대그린푸드는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한 1조2165억 원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삼성웰스토리는 7.0% 늘어난 1조 7110억 원, CJ프레시웨이는 4.5% 증가한

1조7571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아워홈은 1조4032억 원의 실적을 달성했다.

수익성 면에서는 사업 구조와 효율화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현대그린푸드는 단체급식 식수 증가와 케어푸드·외식 사업 성장, 신규 수주 확대에 힘입어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3.9% 증가한 845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삼성웰스토리(620억 원, -3.1%)와 CJ프레시웨이(345억 원, -9.2%)는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했다.

구내식당 이용객이 늘고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체들은 ‘고급화’와 ‘콘텐츠 연계’를 키워드로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현대그린푸드는 호주축산공사와 협업해 프리미엄 부위인 ‘양 티본 스테이크’를 단체급식 메뉴로 선보였다. 기존 단체급식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이색 식재료를 활용해 전문 레스토랑 수준의 미식 경험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CJ프레시웨이는 프리미엄 과일 브랜드 ‘온브릭스’와 협업해 구내식당 간편식 코너에서 대극천 복숭아, 일스멜론 등 희소 품종 과일을 선보이며 디저트 경쟁력을

강화했다. 또한 ‘LG 컬처위크 2026’에서 오락실 콘셉트의 식음 부스 ‘프레시 아케이드’를 운영하며 콘텐츠 IP 연계 특식과 참여형 이벤트를 제공하는 등 고객 맞춤형 식문화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풀무원의 경우 식문화 경험을 강화하기 위한 브랜드 협업과 식단 고도화도 추진 중이다. ‘콘트란세리에’ 베이커리 등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은 물론 월별 컬래버레이션 메뉴를 선보이고 있으며, 2025년 개최한 ‘지속가능식생활 식단 경진대회’를 통해 현장에 적용 가능한 메뉴를 확보하며 지속가능한 급식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외식비 부담이 계속되는 한 가격 경쟁력이 높은 구내식당을 찾는 수요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며 “높아진 소비자들의 미식 수준에 맞춰 메뉴 고급화와 이색 푸드 콘텐츠를 얼마나 잘 접목하느냐가 향후 수주 경쟁의 핵심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광동제약, ‘경옥고 비교광고’에 법적 대응

제약사에 광고 중단·게시물 철거 요구
민형사상 법적 절차 진행 예정

광동제약은 최근 일선 약국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광동 경옥고’ 대상 타사의 불법 비교광고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하며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최근 약국 내에 ‘광동 경옥고와 동일성분·동일함량’, ‘같은 성분 착한 가격’ 등의 문구를 담은 포스터와 배너 등 홍보 게시물이 비치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광동 경

옥고를 직접 지목해 성분과 함량, 가격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현행 약사법 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의약품 광고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광동제약은 자사 제품을 직접 비교 대상으로 삼아 가격 차이를 부각한 이러한 판촉 행위가 명백히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광동제약은 관련 제약사들에 부당 비교광고의 즉각적인 중단은 물론, 이미 유포된 홍보 게시물 일체의 철거 및 회수

를 요구했다. 아울러 회사는 해당 제약사를 상대로 필요한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의약품은 유효성분과 함량이 같더라도 원료의 특성이나 부형제, 제조공정의 차이가 약효나 생체 이용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사안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세븐일레븐 즉석 스무디 100만개 판매

말차·ABC 스무디 신제품 선풍

세븐일레븐이 가을 시즌을 맞아 말차와 과채를 활용한 신제품을 추가하며 스무디 상품군을 확대한다.

세븐일레븐은 지난 3월 출시한 일본식 즉석 스무디의 누적 판매량이 100만개를 넘어섰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세븐셀렉트 말차스무디’를 새롭게 선보이고 다음 달에는 ‘세븐셀렉트 ABC스무디’를 출시한다.

세븐일레븐은 2023년 일본 세븐일레븐에서 출시한 ‘세븐카페 스무디’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약 2년간 준비했다. 즉석 음료 시장 확대와 장비를 활용한 차별화 상품 개발을 위해 현지 기기를 도입하고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약 1년간 현지화 테스트를 진행했다.

즉석 스무디 기기는 상품별로 믹싱 시간과 회전 속도, 블레이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회전 칼날 자동 세척 시스템도 적용했다. 국내 판매 제품은 일본 제품과 비교해 과일 당도를 평균 약 2브릭스(Brix) 높이고 음료 중심부 온도를 영하 5도까지 낮추는 방식으로 현지화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즉석 스무디 출시 6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개를 돌파했다. 가을 시즌을 맞아 말차와 과채를 활용한 신제품을 추가하며 스무디 상품군을 확대한다.

/코리아세븐

즉석 스무디는 전국 약 300개 점포에서 판매되고 있다. 상권별로는 오피스 상권의 매출 비중이 20%로 가장 높았다. 명동과 광화문, 속초, 부산, 제주 등 주요 관광지 점포 80여 곳의 여름철 외국인 매출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즉석 스무디가 외국인 판매 상위 5개 상품에 포함됐다.

세븐일레븐은 가을을 맞아 디저트 수요를 겨냥한 ‘세븐셀렉트 말차스무디’를 출시했다. 국산 말차 추출물과 원유를 사용해 말차라떼를 스무디 형태로 구현한 제품이다. 다음 달에는 건강 콘셉트의 ‘세븐셀렉트 ABC스무디’를 선보인다.

/김서현 기자 seoh@

신세계그룹 신입사원 공개 채용

내달 12일까지 서류접수

신세계그룹이 오는 18일부터 2027년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

이번 채용에는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신세계프라퍼티, SCK컴퍼니(스타벅스), 신세계인태셔널, 신세계디에프(면세점), 신세계I&C, 신세계푸드, 신세계센트럴, 신세계라이브쇼핑 등 10개 계열사가 참여한다.

서류 접수 기간은 9월 18일부터 10월 12일까지다. 서류 전형 결과는 10월 말 발표하며, 11월 계열사별 면접과 12월 최종 면접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한다.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 입사해 그룹 입문교육을 받는다.

신세계그룹은 지난해부터 최종 면접 이후 한 달간 진행했던 인턴십 과정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서류와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바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채용 절차를 운영한다.

신입사원 공개 채용과 관련해 각 계열사별 온·오프라인 채용 홍보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

CJ올리브영, 글로벌 인재 영입 확대

하반기 31개 직무 채용

CJ올리브영이 채용 전략을 강화하며 글로벌 시장 확대와 K뷰티 고도화를 이끌 인재를 육성한다.

CJ올리브영은 오는 30일까지 CJ그룹 채용 홈페이지에서 ‘2026년 하반기 신입사원’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일반 전형과 글로벌 전형을 합쳐 총 31개 직무를 선발한다.

이번 채용의 핵심은 ‘글로벌’과 ‘전문성’이다. 올해 상반기 대비 글로벌 직무를 4개 추가하고 기존 글로벌 전형을 ‘글로벌 인사이트 전형’으로 확대했다. 어학, 글로벌 경험, 문제 해결 등에 대해 다각도로 검증한다.

또 디자인 직무도 신설했다. K뷰티와 최신 유행의 핵심을 다루는 중추적인 역할이다.

이와 함께 K뷰티 현장 전문가와 인공지능 전환에 대비한 기술 경쟁력도 강화

하고 있다. 맞춤형 뷰티 상담을 위한 뷰티 컨설턴트 직무는 2024년 도입 당시 18명에서 현재 약 4배 수준으로 늘었다. 테크 전문 조직은 2021년 신설하고 최근 5년 사이 6.8배 성장했다. 지난해에만 1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신규 채용했다.

올리브영은 이러한 채용 확대 정책을 통해 청년층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입 채용 규모는 2025년 기준, 2021년 대비 3배 이상 커졌다. 최근 5년간 전체 채용 인원의 70.9%가 만 30세 미만 청년이다. 그 결과, 2025년 말에는 전체 임직원 중 청년 비중이 79%에 달했다.

이와 함께 올리브영은 내부 승진 체계도 갖췄다. 매장 정규직의 약 70%가 시급제 직원 출신으로 채워지는 선순환 모델이 구축됐다. 정규직 전환 후에는 점장으로 선발되거나 사내 공고를 통해 총원하는 제도인 ‘잡 포스팅’을 거쳐 본사 직무로 발탁되기도 한다.

/이청하 기자 mlee236@

SK바이오팜, 파킨슨병 신약 후보 확보

CNS 파이프라인 확대

SK바이오팜이 오픈이노베이션센터를 통해 파킨슨병의 근본적 원인을 치료하는 혁신 신약 후보물질을 확보하며 중추신경계(CNS) 파이프라인 다폭 확대에 나섰다.

SK바이오팜은 신약개발 기업 퍼스트 바이오테라퓨틱스와 파킨슨병 치료제 신약 후보물질의 글로벌 독점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확보하는 라이선스 계약과 30억 원 규모의 전략적 지분투자(SI)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라이선스 계약 규모는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 25억원과 단계별 마일스톤 등을 포함해 최대 약 4308억원에 달한다. 상용화 이후 순매출액에 따른 로열티는 별도로 지급된다.

이번 계약은 SK바이오팜의 오픈이노



17일 SK바이오팜 판교 사옥에서 진행된 SK바이오팜-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기술이전 및 전략적 투자 계약 체결식에서 김재은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대표(왼쪽)와 유창호 SK바이오팜 전략부문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SK바이오팜

베이션센터가 주도해 성사시킨 첫 번째 후보물질 도입 사례다. SK바이오팜은 중추신경계(CNS)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게 됐다.

/이청하 기자



LG전자, 라이프스굿 봉사단 나눔 활동

LG전자는 라이프스굿(Life's Good) 봉사단이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소재 염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찾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봉사단은 장애인들과 함께 송편을 빚고 전을 부치며 추석 음식을 준비했다. 또 미리 준비한 떡도 선물했다. /LG전자



중견련-충북도, 중견기업 자금조달 '맞손'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16일 충청북도청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중견기업 활동 기반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왼쪽 두번째부터)한국중견기업연합회 김현철 상근부회장, 신용한 충청북도지사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견기업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강공원 환경정화 봉사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저축은행 사회공헌활동의 날과 창립기념일이 있는 9월을 맞아 지역사회와 그 의미를 나누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축은행중앙회

서울시교육청

내일 서울국제교육포럼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19일 리더러시 교육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이는 국제포럼을 연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는 연세대와 공동 주관하는 '2026 서울국제교육포럼(SIEF 2026)'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리더러시, 세상을 읽고 생각을 연결하다'를 주제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 우면관에서 열리며, 서울교육공동체와 국내외 유관 기관, 교육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다. /김수정 기자 kcrystal@

인사 ◆연세대학교의료원 ◇의과대학 ▲피부생물학연구소장 박창욱 ◇보건대학원 ▲산업환경보건학과 주임교수 김치년 ◇용인세브란스병원 ▲간담체외과장 최문석 ▲감상선내분비외과장 이초록 ▲대장항문외과장 김태형 ▲소아외과장 호인걸 ▲유방외과장 이준상 ▲위장관외과장 방희재 ▲이식중환자외과장

부음 ▲김성연씨 별세, 김용진(국민의힘 공보국장·前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씨 장인상=17일, 서울 은평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19일, 02-2030-4444

SK하이닉스, 내달 3만명 초청 'ThanksFULL Day' 개최

주요 협력사 구성원과 가족 초청 동행·감사 주제 다양한 행사 진행

SK하이닉스가 주요 협력사 구성원과 가족 3만여 명을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동반성장 행보를 이어간다.

SK하이닉스는 오는 10월 15일 과천시 올랜더에서 130여 개 주요 협력사 구성원 8000여 명과 가족 등 약 3만 명을 초청해 'ThanksFULL Day'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행사명 'ThanksFULL Day'에는 함께 성과를 만들어온 협력사 구성원과 가족들에게 감사(Thanks)의 마음을 가득(FULL) 담아 전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반도체 기술 개발과 생산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협력사의 전문성과 현장 구성원들의 노력이 큰 역할을 해온 만큼 이들에게 직접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



SK하이닉스 'ThanksFULL Day' 초청장. / SK하이닉스

행사는 '동행'과 '감사'를 주제로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꾸며진다. 참석자 전원에게 웰컴 기프트를 제공하고 어린이 참석자에게는 랩을 본뜬 입체 크래프트 등이 포함된 '키즈 굿즈' 세트를 전달한다.

김영호 대표, '2026 한국경영대상' 수상

(삼성전자서비스)

삼성전자서비스 고객만족 부문 대상

삼성전자서비스가 전국 서비스센터에 예약제를 도입하고 인공지능(AI) 원격진단을 강화하며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주요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잇따른 수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김영호 대표이사 부사장(사진)이 '2026 한국경영대상' 최고경영자(CEO) 분야 고객만족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한국경영대상은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후원한다. 국가 산업과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CEO를 선정해 시상한다.

김 부사장은 '고객 최우선'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서비스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인 점을 인정받았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서비스는 지난 4월부터 전국 모든 서비스센터에 예약 서비스를 전면 도입했다. 고객이 원하는 시간을 미리 정해 방문해 대기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회사 측은 시행 이후 고객 만족



도와사전 예약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를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스마트싱스(SmartThings)와 연계한 가전제품 원격진단(HRM)을 통해 제품 상태를 확인하고 엔지니어 방문 없이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서비스 강화는 외부 평가에서도 성과로 이어졌다. 지난 7월 한국표준협회의 '2026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에서 가전제품·후대전화·컴퓨터 AS 전 부문 1위에 올랐다. 전자제품 AS 업계에서 25년 연속 1위다. 컴퓨터 AS는 25년, 후대전화 AS는 23년 연속 1위를 기록했고 가전제품 AS는 통산 22회 1위를 차지했다.

김영호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부사장은 "한국경영대상 고객만족 부문 2년 연속 수상은 임직원 모두가 '고객 최우선' 철학을 실천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태광그룹, 노사합동 플로깅 캠페인 전개

티시스 CS사업본부 노사협 위원 참여

태광그룹 레저·인프라 계열사 티시스 CS사업본부는 서울 영등포역 일대에서 노사협의회 위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합동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플로깅은 조깅이나 산책을 하면서 길가의 쓰레기를 함께 줍는 친환경 활동이다. 이번 플로깅은 지역사회 환경보호와 노사 간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은 회사 건물에서 영등포역까지 걸으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노사 간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보냈다.

티시스 CS사업본부 노사협의회는

2018년 자발적 소통 기구인 '두드림(DO! DREAM) 제도'로 출발했다. 이 제도는 임직원의 의견을 듣고 노사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된다.

부서별로 7명의 위원이 참여해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후 2019년 CS사업본부 노사협의회 운영이 결정되면서 두드림 간담회를 노사협의회로 전환했다.

티시스 CS사업본부는 노사 간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면서 임직원 복리후생 강화와 근무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노사협의회는 2019년부터 2026년 2분기까지 120여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85건을 조치 완료해 약 71%의 개선율을 기록했다. /양성운 기자 ysw@

SK하이닉스 경영진도 현장에서 협력사 구성원과 가족들을 직접 맞이한다. 차선용 미래기술연구원장(CTO)과 이병기 양산총괄(CPO) 등이 행사장 입구에서 참석자들을 환영한다. 과노정 대표이사 사장(CEO)도 행사장을 찾아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협력사의 경쟁력이 국내 반도체 생태계와 회사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판단 아래 기술·금융·경영 전반에 걸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향후 5년간 1조 4000억원 규모의 상생 자금을 활용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협력사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술 분야에서는 기술력을 갖췄지만 자금 부담을 겪는 협력사를 위한 'R&D 도전보상제'와 보유 특허를 협력사와 공유하는 'IPR Sharing 자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협력사와 공동으로 연구개발과 검증을 진행할 수 있는 '트리니티 랩'을 구축해 2027년부터 개방할 예정이다.

금융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동반성장 펀드'를 통해 협력사에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고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해왔다. 올해 추석을 앞두고도 약 3047억원 규모의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해 협력사의 유동성 부담을 덜 계획이다.

과 CEO는 "협력사는 K-반도체 경쟁력을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동반자로서, SK하이닉스의 성과 역시 현장에서 함께 땀 흘려온 협력사 구성원들의 노력 없이는 이룰 수 없었다"며 "구성원과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는 동시에, 협력사가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CJ제일제당, 서울청년주간 '나눔냉장고' 운영

식품사업 역량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

CJ제일제당이 청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먹거리 지원을 비롯해 식품사업 역량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단순 식품 기부를 넘어 영양교육과 사회적 관계 형성, 희귀질환자를 위한 제품 생산 등 지원 영역을 넓히는 모습이다.

CJ제일제당은 오는 18~19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달빛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2026년 서울청년주간'에 참여해 'CJ제일제당 나눔냉장고' 부스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사에서는 식품 나눔과 자원순환을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참여 청년들에게 햇반 등 식품을 제공한다. 햇반 용기 수거와 생분해성 바이오소

재 PHA 관련 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나눔냉장고는 CJ제일제당이 서울시와 함께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민관협력 사업이다. 서울청년센터에 냉장고를 설치하고 식품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햇반과 냉동식품 등으로 구성된 식품 꾸러미를 제공한다. 2026년 기준 서울청년센터 9곳에 나눔냉장고가 설치됐으며, 지금까지 약 4만 3000명의 취약청년에게 식품 꾸러미를 지원했다.

지원 방식도 식품 전달에 그치지 않는다. 식습관 자가진단과 영양교육을 비롯해 쿠킹 클래스와 소셜 다이닝 등을 운영하며 청년들의 식생활 개선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돕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아모레퍼시픽그룹, 협력사 대금 조기 지급

600개 협력사 대상 649억 규모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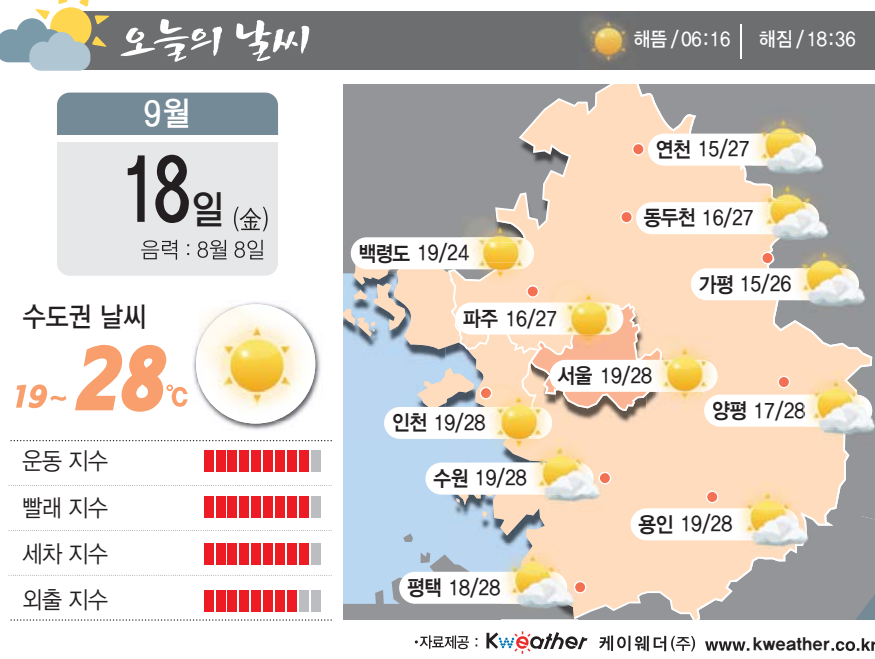
아모레퍼시픽 그룹이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는다.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649억원 규모의 거래대금을 협력사에 조기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27일까지 지급 예정이던 일정을 최대 10일 당겼다.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9개 계열사에 원부자재, 용기, 제품 등을 공급하는 600여 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17일부터 순차 지급이 이뤄진다.

이상목 아모레퍼시픽홀딩스 대표는 "앞으로도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면접 평가의 본질과 합격 전략



지 상 범 역
입시 토크

◆수시 지원 마감 이후 수험생이 주목해야 할 면접의 실질적 영향력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된 지금 고3 수험생의 시선은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과 다가오는 면접고사로 향해야 한다. 대학 입학처가 면접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본질은 제출 서류의 진위 확인과 수험생의 잠재적 학업역량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수시 모집에서 면접의 반영 비중은 표면적인 비율 이상으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1단계를 통과한 지원자들은 서류 점수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결국 면접에서의 점수 차이가 최종 합불을 갈라놓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대학 입학처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면접의 유형별 특성과 구체적인 대비 전략을 깊이 있게 제시한다.

◆서류 기반 면접에서는 생활기록부 속 주도적 탐구 과정을 재구성해야 한다

첫째, 서류 기반 면접의 핵심은 생활기록부 속 주도적 탐구 과정의 재구성이다. 입학사정관들이 검증하고 싶어 하는 것은 실제 본인이 수행한 활동인가와 그 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성장했는가다. 단순 사실 확인 질문에 단답형으로 응답하는 것은 감점 요인이

다. 입학처는 활동의 계기,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극복 노력, 지원 전공과의 연계 스토리까지 요구한다. 따라서 주요 활동 계기를 명확히 정리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된 학술 용어나 탐구 기록의 개념을 완벽히 복기해야 한다. 입학처는 화려한 스펙보다 자신의 활동을 깊이 고민하고 이해한 진정성 있는 태도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제시문 기반 면접은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입증하는 장이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에서 실시하는 제시문 기반 면접의 본질은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의 입증이다. 제시문 기반 면접은 단순 지식의 양을 묻지 않는다. 생소한 지문이나 복잡한 상황을 종합해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의 과정을 평가한다. 구상 시간 동안 답변의 뼈대를 만드는 구조화 작업을 선행하고 출제 의도를 파악해 두괄식으로 견해를 제시해야 한다. 면접관의 지적이나 꼬리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지적을 수용하며 논리를 수정 및 보완하는 유연함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대학은 완성된 학자가 아니라 학문을 탐구할 준비가 돼 있는 유연한 인재를 선발하기 때문이다.

◆MMI와 상황 면접에서는 명확한 가치 판단과 윤리적 태도가 필요하다

의약학계열의 MMI나 사범계열의 상황 면

접은 엄격한 도덕적 잣대와 인성을 측정한다. 정답이 정해지지 않은 딜레마 상황에서 고득점을 받으려면 자신만의 명확한 가치 판단 기준을 제시하되 자신이 선택한 결정의 한계와 부작용까지 인지하고 보완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제시된 상황의 복잡성을 인정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고득점의 비결이다. 대학은 정해진 규칙을 외운 학생보다 윤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한다.

◆두괄식 답변과 철저한 모의면접을 통해 실전 대응 기술을 완성하라

면접장에서 실력을 발휘하려면 모든 답변을 결론부터 밝히는 두괄식으로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는 평가자가 핵심을 즉시 파악하게 만든다. 또한 면접관과의 자연스러운 시선 교환과 안정된 음성 톤을 유지하고 모의면접을 영상으로 촬영해 나쁜 습관과 자세를 교정해야 한다. 마지막 발언 역시 단순 감성적 호소가 아닌 지원 전공에 대한 열정과 학업 로드맵을 임팩트 있게 전달해야 한다. 면접은 자신이 가진 가치와 가능성을 직접 증명하고 돋보이게 해주는 기회의 장이다. 서류를 철저히 해부하고 지원 대학의 면접 스타일을 완벽히 이해한다면 면접장은 합격을 확정 짓는 최고의 무대가 될 것이다.

/JSB진로진학연구소장

공존(共存)과 병존(並存)



김 아 영
(자본시장부)

사회 구성원이 살아가는 방식은 공존(共存)과 병존(並存)의 형태로 나뉜다. 공존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교집합을 넓혀가는 것이라면 병존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되 각자의 영역에 머무는 방식이다. 최근 국내 자본시장의 움직임은 이 차이를 시장의 언어로 보여줬다.

지난 7월 코스피는 한 달 만에 22.19% 급락했다가 7월 31일 하루 만에 17.91% 급등했다. 이 기간 동안 서킷브레이커는 네 차례, 사이드카는 15차례 발동했다. 5월 출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로 자금이 몰리면서

특정 종목과 방향에 거래가 집중된 시기였다. 이후 시장의 진폭은 눈에 띄게 줄었다. 올해 코스피 사이드카는 8월까지 49차례 발동돼 2008년 금융위기 당시 26회를 넘어섰지만, 월별 발동 횟수는 7월 15회에서 8월 5회로 줄었고 이달 중순까지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코스닥 역시 7월 12회에서 8월 4회로 감소했다.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도 6월 29일 최고 96.94에서 최근 44.24까지 내려왔다.

시장을 움직이던 자금의 규모도 달라졌다.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면서 6~7월 10조원을 웃돌던 관련 ETF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최근 급감했다.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최근 6월 50조3471억원에서 7월 36조8755억원, 8월 25조8460억원으로 감소했고 이달 들어서는 21조8631억원까지 낮

아졌다. 거래를 줄이고 쏠림을 완화하자 시장의 변동성도 낮아졌다. 하지만 변동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달 14일 개장한 KRX 애프터마켓에서는 첫날 변동성완화장치(VI)가 1112회, 이튿날에도 858회 발동됐다. 애프터마켓은 시장가 주문을 제한하고 가격제한폭과 VI를 적용했지만 개별 종목의 높은 변동성이 나타났다.

서로 다른 상품이 같은 공간에 존재하면 병존이다. 그 차이가 연결돼 한쪽의 충격을 다른 쪽이 받아낼 수 있다면 공존이다. 레버리지 상품의 쏠림을 완화하는 것만으로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할 수는 없다. 변동성을 없애는 시장이 아니라 서로 다른 판단과 자금이 충격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공존하는 시장이다.

/aykim@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18일 (음 8월 8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육구를 앞세우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60년생 늦게라도 원하는 바는 이루어집니다. 72년생 전업이나 개업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84년생 일에 장애가 많아 초조한 마음입니다.



49년생 귀하에게 필요한 건 안정입니다. 61년생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힘든 상황입니다. 73년생 당신을 때를 기다리며 힘을 길러야 합니다. 85년생 모든 일에는 순리가 있는 법입니다.



50년생 만족하고 바르게 행동한다면 모든 것이 갑니다. 62년생 지나친 고집은 금물입니다. 74년생 상대는 귀하보다 한수 위입니다. 86년생 반드시 행운이 찾아 올 것입니다.



51년생 적당주의는 금물입니다. 63년생 조그마한 일에 충실해야 될 때입니다. 75년생 동료와의 기쁜 만남이 있습니다. 87년생 다툼을 주의한다면 더욱 좋은 결과가 올 것입니다.



52년생 행복을 시기 질투하는 자가 있습니다. 64년생 어려움이 많고 괴로움이 많을 것입니다. 76년생 재물은 크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88년생 목적의식을 가지고 끊임 없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53년생 큰 사고를 당할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65년생 개인의 사리사욕을 버리고 공동의 이익에 봉사하세요. 77년생 귀하의 운은 쇠퇴기입니다. 89년생 모든 일을 자제하세요.



54년생 흉한 인간 관계가 있다면 속히 정리하는 게 갑니다. 66년생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78년생 힘든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90년생 동남방이 길방입니다.



55년생 돌아오는 것이 큰 것이라 길운입니다. 67년생 뜻밖의 재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79년생 이곳 저곳에서 이익을 들이느라 바쁩니다. 91년생 남쪽에 좋은 인연이 있습니다.



56년생 큰 거래는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갑니다. 68년생 자녀에게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80년생 친구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92년생 함께하는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57년생 작은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9년생 언행일치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81년생 생각지도 못한 지출을 하게 됩니다. 93년생 반가운 사람들과 맛있는 식사를 하게 됩니다.



58년생 단기간이지만 입원치료를 볼사해야 합니다. 70년생 전업은 길하지 못합니다. 82년생 부지런히 뛰어 다니시기 바랍니다. 94년생 청천이나 용돈을 받습니다.



59년생 사회적인 책임감 때문에 많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71년생 서둘러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83년생 운이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95년생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김상회의四季 긍정의 힘

위렌 버핏은 전 세계 부자들 중 '현인'(賢人)이란 칭호를 가졌다. 그런데 이런 위렌 버핏마저도 내놓고 존경한다며 칭찬한 인물이 찰스 멩거(CharlesMunger)다. 그 유명한 버크셔 해서웨이에 합류해 거물급 투자자인 위렌 버핏 회장의 오른팔로 활약했으며, 1924년생으로 버핏보다 6살이 많지만 그의 절친한 친구이자 동업자였다. 버핏의 유명세 보다는 약하지만 엄연히 가치 투자의 대가로 손꼽히며 성공한 투자자산가로서 그 위상을 안다. 버핏이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렸다면 찰스 멩거는 '패서디나의 현인'으로 불렸다. 버핏과 같은 오마하 출신이지만 패서디나에 거주했기에 붙은 별명인 것이다. 그도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강조하며 1978년에 버크셔 해서웨이에 이사로 합류해 위렌 버핏과 함께 가치 투자로 대성공을 거두며 명성을 날렸다.

그러나 성공한 그도 개인적인 고뇌와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다. 물론 고학력에 변호사란 직업을 가졌었으나 신참 변호사 시절이었던 젊은 시절에는 수입이 좋지 못했단다. 첫째 아들 테디 멩거가 8살에 소아백혈병에 걸렸는데, 치료비에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지급했음에도 결국 1년 만에 사망하자 길거리에서 소리 내어 울었다. 자녀도 많았던 그는 '내가 좀 더 부자였다면 아들을 살릴 수 있었을까?' 하는 회한이었다. 부모로서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은 너무나도 무력하고 주저앉게 되는 크나큰 괴로움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 연민은 상황을 나아지게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일어섰다. 절치부심하며 경제적 독립을 위해 투자업에 발을 들였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도 종종 투자를 위한 종잣돈 마련까지는 하루를 졸라매는 내뺌을 요구하듯이 그 역시 그랬다. 그렇게 그는 종잣돈을 마련했고 가치 투자의 대가로 우뚝 섰다. 주저앉지 않고 일어난 긍정의 힘을 보여준 인물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98호	
일간 메트로경제 <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02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엄정화 박성웅 이상윤 배정남 박진주 려운 그리고 최수영

감독 이철하 제작 CGV 픽처스 윌(OAL) 배급 CGV 픽처스 제작 윌(OAL) 15세이상관람가

절찬상영중

올 여름 시원하게 OK?

오케이 마담2



“고급화·이색상품 한자리… ‘취향 맞춤’ 선물 준비하세요”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이어지는 나흘간의 일정으로 예년 대비 다소 짧은 편이다. 연휴 길이가 짧아지면서 긴 해외여행이나 장기 휴양보다는,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오붓하고 단란한 시간을 나누며 명절 본연의 의미를 되새기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처럼 짧고 집약적인 연휴 특성에 따라 명절 선물을 미리, 알차게 준비하려는 움직임도 분주하다. 유통업계는 변화된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다채로운 라인업으로 시장 공략에 나섰다. 고물가 기조 속 부담을 낮춘 실속형 ‘가성비’ 세트부터 환경과 동물복지를 고려하는 MZ세대의 ‘가치소비’ 맞춤형 상품, 명인 협업 및 한정판 중심의 ‘프리미엄’ 세트까지 스펙트럼을 대폭 넓혔다. 사전예약과 유통 채널별 프로모션을 적극 활용해 합리적이고 정성 어린 선물을 조기에 수배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추석, 실속 있게 준비한 명절 선물과 함께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풍성하고 뜻깊은 한가위가 되기를 기대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coul.co.kr



먹거리부터 리빙까지 프리미엄 강화

현대백화점

1++ 한우·고당도 과일 고급 식품군 확대
바카라·샤넬 등 리빙·뷰티 100여종 마련

현대백화점은 오는 24일까지 백화점 전 점포 식품관과 무역센터점 선물 큐레이션 편집집 ‘더현대 기프트(The Hyundai Gift)’, 프리미엄 큐레이션 전문몰 ‘더현대 하이(Hi)’에서 ‘2026년 추석 선물세트 본판매’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본판매에서는 한우와 굴비, 청과 등 전통적인 명절 선물에 더해 고객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뷰티리빙 등 비식품 상품군을 확대했다. 전체 선물세트는 역대 최대인 1600여 종이다.

한우 선물세트는 지난해보다 10% 늘린 12만 세트를 준비했다. 필요할 때마다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소포장한 ‘소담 세트’ 라인업도 강화했다. 올 추석에는 처음으로 1++등급 한우와 12가지 특수부위를 200g 단위로 소포장한 상품을 선보인다. 구이용 한우로 구성된 ‘현대명품 한우 소담 매(梅)’와 구이용 및 양지 국거리로 구성된 ‘현대명품 한우 소담 죽(竹)’ 등이 대표 상품이다.

청과 선물세트는 당도와 품질 기준을 강화했다. 프리미엄 과일 디저트 수요를 반영해 ‘H스위트 고당도 복숭아 세트’를 처음 선보인다. 해당 상품은 당도 15브릭스(brix) 이상인 복숭아로 구성했다. 일반 복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 위치한 선물 큐레이션 편집집 ‘더현대 기프트(The Hyundai Gift)’ 매장에서 직원들이 명절 프리미엄 리빙 선물 세트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

/현대백화점

숭아의 평균 당도는 10~12브릭스 수준이다. 리빙·뷰티 상품도 추석 선물 라인업에 포함했다. 프랑스 크리스털 브랜드 ‘바카라’, 홈 엔터테인먼트 브랜드 ‘뱅앤올웁스’, 뷰티 브랜드 ‘샤넬 뷰티’ 등을 포함해 100여 종의 리빙·뷰티 상품을 마련했다. 럭셔리 테이블웨어에서는 바카라 ‘크리스털 텀블러’, 크리스토폴 ‘6인조 컷러리 세트’, 베르나르도 ‘에퀴메 화이트 샬러드 플레이트 세트’ 등을 판매한다. AI 기술을 활용한 선물 추천 서비스도 운영한다.

/김서현 기자 seoh@

전복·굴비에 와인까지 상품군 확대

이마트

행사카드 결제 시 할인·상품권 혜택
사전예약 인기 나주배도 24일까지 선택

이마트가 24일까지 2026년 추석 선물세트 본판매를 진행한다.

이번 본판매에서는 과일·축산·수산·가공·생활용품 등 다양한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행사카드 결제 또는 신세계포인트 적립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행사카드로 일정 금액 이상 결제하면 신세계상품권을 증정한다. 일부 행사카드로 결제할 경우 무이자 할부도 제공한다.

본 판매에 맞춰 와인 상품도 추가했다. 칠레산 와인 2종으로 구성된 ‘몬테 슈프리모 그란리제르바 세트’와 프랑스산 와인 2종으로 구성된 ‘샤또 레 무아 나르+샤또 로브 세트’ 등을 새롭게 선보인다. 일부 와인 품목은 2세트 이상 구매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과일에서는 사전예약 기간 누적 매출 1위를 기록한 배 선물세트를 본 판매에서도 선보인다. ‘프리미엄 나주배’는 배 5kg을 8~9입으로 구성했다.

축산에서는 10만원대 한우 선물세트를 마련했다.



이마트는 과일·축산·수산·가공·생활용품 등 다양한 선물세트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추석 선물세트 본판매를 진행한다.

/이마트

‘한우 냉장 2호 세트’는 한우 1등급 등심구이와 국거리 등 총 2kg으로 구성했다. ‘피코크 작경매 암소 한우 풍족 세트’는 1+등급 등심구이·채끝구이·국거리·불고기를 각각 500g씩 담았다.

수산에서는 전복과 굴비 선물세트를 판매한다. ‘이마트 전복 세트 특대’는 국산 전복 15마리로 구성했으며, ‘특선 영광 잠굴비 2호’는 국산 잠굴비 10마리를 담았다.

/김서현 기자

숙성·발효로 빛은 ‘시간의 가치’

롯데백화점

360시간 한우·30년 이상 위스키 한정 판매
200년 씨간장·식품명인 장류 등 이색 구성

롯데백화점이 올 추석 숙성과 발효를 앞세운 ‘타임 프리미엄(Time Premium)’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롯데백화점은 한우와 주류, 그로서리 등 선물세트 전반에 걸쳐 장기간 숙성하거나 전통 발효 방식을 활용한 상품을 마련했다.

축산에서는 360시간의 숙성 노하우를 적용한 ‘숙성 한우’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6년 연속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숙성육 전문 다이닝 ‘숙수도가’와 협업해 ‘숙수도가 숙성 등심·안심 정찬’과 ‘숙수도가 숙성 등심·채끝 정찬’ 2종을 출시했다.

돈육 선물세트에는 특수 숙성 기법을 적용했다. 숙성 흑돼지 전문점 ‘숙성도’와 협업한 ‘숙성도 흑돼지’는 국립축산과학원이 25년간 연구해 복원한 ‘우리 흑돈’의 오겹살과 목살, 뼈등심 부위를 168시간 동안 웨이징(Wet Aging)한 상품이다.

30년 이상 장기 숙성한 고연산 위스키도 한정 수량으로 판매한다. ‘아드벡 더 어비스’는 1989년 증류한 싱글 몰트 위스키 원액을 프렌치 오크통에서 추가 숙성한 제품으로, 만화 아티스트 트레이드 무어가



전남 나주 박경중 종가의 대를 이어 내려오는 비결을 담은 ‘200년 씨간장’ 기프트를 선보이고 있는 모델의 모습. /롯데쇼핑

패키지 디자인에 참여했다. 이 밖에도 ‘조니워커 40년 마스터스 루비 리저브’, ‘맥켈란 40년 레드컬렉션’ 등을 선보인다.

전통장 선물세트는 명가 및 식품 명인과 협업해 장기간 이어져 온 발효 방식을 적용한 상품으로 구성했다. 롯데백화점 한식 브랜드 ‘남파고택’에서는 전남 나주 박경중 종가에서 200년 동안 대를 이어 덧장을 부어 완성한 ‘200년 씨간장 기프트’를 판매한다. 기순도, 성명례, 조정숙 등 식품 명인과 협업한 된장과 고추장, 참기름 선물세트도 마련했다.

/김서현 기자

전통주·한우 강세에 취향형 상품 인기

롯데온

전통주 판매 7배 증가·한우도 20% 늘어
간식·혼합과일 등 이색 품목 주문도 증가

롯데온이 지난 9일까지 추석 행사 판매량을 집계한 결과 전통적인 명절 선물과 함께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상품의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통주 선물 판매 증가가 두드러졌다. 전주 이강주, 안동소주, 고려개국주, 문배주 등 지역 특색을 담은 전통주 선물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7배 늘었다.

추석 기간 가족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간식류도 판매가 이어지고 있다. 기화병가 에그롤, 그레이스 셀렉션 쿠키세트, 잘보리빵 선물세트 등이 대표적이다. 김부각 브랜드 ‘바삭’이 손종원 셰프와 협업한 상품도 주문량이 증가했다.

전통적인 명절 선물에 대한 수요도 이어졌다. 청정원, 사조, CJ제일제당, 애경, LG생활건강 등의 식품·생활용품 선물세트가 판매 상위권에 올랐다.

한우 선물세트 판매량도 증가했다. 온도씨 한우를 비롯해 우매중, 대한사람대한국로, 손수맛찬 등의 한우 상품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 늘었다.

과일 선물세트에서는 배와 사과에 망고, 멜론 등



롯데온이 오는 20일까지 ‘온마음 추석’ 행사를 연다. /롯데쇼핑

을 함께 구성한 혼합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이 밖에도 딸가레호 올리브유, 하루견과 세트, 오설록 티 컬렉션 등 품목을 다양화했다. 롯데온은 추석 행사 기간 할인 쿠폰과 상품별 엘포인트(L.POINT)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정관장 홍삼진고 데일리스틱, 대천김 선물세트, 사미헌 한끼갈비탕, 과일꾼 사과·배 혼합 세트 등을 판매하며 한우 상품으로는 청풍명월과 동양축산 선물세트 등을 마련했다.

한편, 롯데온은 오는 20일까지 ‘온마음 추석’ 행사를 진행한다.

/김서현 기자

6년근 홍삼 그대로… 실패 없는 ‘명품 선물’

KGC인삼공사

명절 대표 건강선물 정관장 홍삼 농축액
면역력·피로개선 등 5대 기능성 인정받아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선물 선택지가 다양해지면서 오히려 ‘실패하지 않는 선물’을 찾는 수요가 커지고 있다.

받는 사람의 연령과 취향, 라이프스타일까지 고려한 상품이 쏟아지면서 한우·과일 등 전통 선물부터 디지털·커피·간편식·리빙 제품까지 품목이 확대됐지만, 부모님이나 웃어른을 위한 선물로는 익숙한 제품과 브랜드가 여전히 선택지로 꼽힌다.

대표적인 품목이 홍삼이다. 홍삼은 오랫동안 명절 대표 건강 선물로 자리 잡은 데다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까지 갖고 있어 선물 수요가 꾸준하다. 특히 다양한 제형과 원료를 앞세운 건강기능식품이 늘어나는 가운데서도 전통적인 농축액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있다.

정관장 ‘홍삼정’은 6년근 홍삼을 달여 농축한 100% 홍삼농축액 제품이다. 다른 부원료를 넣지 않고 홍삼 자체에 집중한 것이 특징이다.

정관장의 주요 홍삼 제품은 원료와 제조 기술 측면에서 홍삼정을 기반으로 개발된다. 이를 바탕으로 ‘홍삼정 마스터클래스’, ‘홍삼정 리미티드’ 등 프리미엄 라인업도 운영하고 있다. 내부 조직이 치

밀하고 맛과 향이 뛰어난 지삼 등 희소 원료를 활용한 제품은 프리미엄 건강식 시장에서 차별화 요소로 꼽힌다.

기능성도 명확하다. 홍삼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혈소판 응집 억제 등을 통한 혈액 흐름, 기억력 개선, 항산화 등 5대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다.

오랜 시간 이어진 제품이라는 점도 선물을 고를 때의 고민을 덜어주는 요소다. 최근에는 스틱과 음료, 구미 등 건강기능식품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농축액 형태의 홍삼정 역시 꾸준히 선택되고 있다.

취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부모님과 웃어른에게는 새로운 제품보다 오랜 기간 익숙하게 소비돼 온 품목이 선물 선택의 부담을 낮추는 대안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홍삼정.

/KGC

식품부터 여행까지… 안방서 누리는 풍성함

롯데홈쇼핑

추석 특집전 ‘보름찬 다드림쇼핑’ 열어
식품 집중 편성… 연휴 후 뷰티·여행 상품도

롯데홈쇼핑은 이달 21일까지 추석 특집전 ‘보름찬 다드림쇼핑’을 열고 국내산 먹거리부터 해외 식재료, 주방용품까지 명절 관련 상품을 선보인다.

행사 기간 대표 프로그램의 추석 특집 편성을 확대하고 구매 고객 대상 적립금 혜택과 숏폼 영상 이벤트도 진행한다. 하루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스탬프 1개를 지급하고 누적 스탬프 수에 따라 적립금을 제공한다.

TV홈쇼핑에서는 이달 21일까지 명절 선물과 추석 상차림 수요를 겨냥해 먹거리 상품을 집중 편성한다.

부산 한식당 ‘사미현 갈비탕’을 비롯해 원육을 사용한 ‘한원정 꽃갈비’, ‘신세계푸드 LA갈비’ 등을 판매한다. 오는 18일에는 일본 후쿠오카 장어구이 전문점 ‘이나카만’의 장어구이 세트를 선보인다. 해당 상품은 식품 방송 최초로 고객이 원하는 배송일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명절 준비와 연휴 이후 수요를 고려해 뷰티와 가전, 여행상품 편성도 확대한다. 19일에는 ‘리얼데인 셀라뉴 퍼스트 에센스’를, 20일에는 ‘달바’, ‘AHC’ 등 뷰티 브랜드의 추석 에디션과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빅마마쇼 추석 특집 방송 이미지.

/롯데홈쇼핑

18일부터는 ‘샤크 청소기’, ‘로보락 습건식 청소기’ 등 생활가전을 판매한다. 연휴 이후 출발하는 여행상품도 편성했다. 20일에는 ‘참좋은여행 북해도’와 ‘교원투어 이집트·스페인’ 패키지를 판매하고, 27일 오후 5시부터 120분 동안 일본 여행 특집전을 진행한다.

대표 프로그램 ‘최유라쇼’는 추석을 맞아 ‘특별한 추석’ 특집을 진행한다. 19일에는 ‘청도반건시’, ‘횡성한우 세트’, ‘담꽃 생강차’ 등을 판매한다. ‘요즘쇼핑 유리네’는 같은 날 ‘아로마티카 에센스’를 별도 패키지로 선보인다.

이달 27일까지 ‘최유라쇼’와 ‘요즘쇼핑 유리네’의 추석 상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숏폼 영상 이벤트도 진행한다. ‘우리가족 추석 선물 리액션’ 또는 ‘롯데홈쇼핑 상품 리뷰’를 주제로 영상을 제작해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호텔 식사권과 백화점 상품권, 커피 교환권 등을 제공한다.

/김서현 기자 seoh@

군위 사과 듬뿍… 달콤한 지역상생 디저트

롯데웰푸드

지역경제 활성화 ‘군위 사과’ 신제품 선보여
몽셀·꼬깔콘 등 대표 브랜드 15종에 적용

롯데웰푸드가 지역 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대구광역시 군위군과 손잡고 ‘군위 사과’를 활용한 신제품을 선보였다.

군위군의 사과는 당도가 높고 아삭한 식감을 자랑한다. 팔공산 자락에 위치해 과수 재배에 적합한 큰 일교차와 풍부한 일조량을 갖춘 지역적 장점 덕분에다. 롯데웰푸드는 군위 사과의 특징점을 자사 대표 브랜드에 접목해 건과 11종, 빙과 2종, 베이커리 2종 등 총 15종의 ‘군위 사과’ 시리즈 라인업을 선보였다.

출시 제품은 ▲몽셀 애플 ▲꼬깔콘 애플시나몬 ▲ABC초코쿠키 애플요거트 ▲롯데 애플 ▲제로 미니 케이크 애플시나몬 ▲제로 초코파이 애플시나몬 ▲제로 연양갱 애플시나몬 ▲아몬드볼 애플요거트 ▲크런키 초코바 애플카라멜 ▲사과캔디 ▲과일한입 젤리 애플 등 건과 11종과 ▲위즐 애플잼크림 모나카 ▲조이 그릭요거트 군위사과 애플 등 빙과 2종 그리고 ▲기린 오리진 카스테라 애플 ▲기린 애플 생크림빵 등 베이커리 2종이다.

패키지 디자인부터 오프라인 프로모션까지 지역 홍보를 위한 다채로운 활동도 전개한다. 제품 패키지 전면에는 사투리를 활용한 ‘군위 사과 왔데이’라는 재치있는 슬로건을 삽입해 친근감을 더했다. 뒷면에는 군위 사과의 우수성을 소개하는 문구도 넣어 특산물 홍보 효과도 제고했다.

/신원선 기자

실속·이색상품 등 선물세트 600여종 선보

GS리테일

‘우리동네 선물가게’ 테마로 명절선물 준비
골드·로봇 등 폭넓은 구성에 할인 혜택까지

GS25가 추석을 맞아 다음달 26일까지 ‘2026 우리동네 선물가게’를 테마로 600여 종의 명절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이번 추석 선물세트는 로봇과 스마트 기기, 골드·실버 상품, 주류 등 이색 상품부터 식품 중심의 실속형 상품까지 폭넓게 구성했다.

명절 선물세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 사전 행사도 진행한다. 다음달 4일까지 127개 상품을 대상으로 삼성·KB국민·BC·신한카드와 제휴해 1+1, 2+1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스마트 기기 상품군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비롯해 스마트워치와 음식물처리기 등을 선보인다. 얼굴 표정과 음성 톤, 몸짓, 맥박 등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감정을 인식해 반응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소셜로봇리쿠’를 비롯해 바둑을 둘 수 있는 ‘센스로봇고’, AI 대화 기능을 탑재한 로봇 커피 ‘에일리코’ 등을 마련했다.

러닝과 건강 관리 수요를 겨냥한 가민 스마트워치와 명절 음식 조리 후 남은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미닉스 MAX 음식물처리기’도 판매한다.



GS25는 추석을 맞아 다양한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GS리테일

금과 은을 활용한 상품도 총 15종을 준비했다. 안중근 의사의 수인과 초상을 담은 ‘한중근 의사 금메달 3.1g’, 이중섭 작가의 은지화를 활용한 ‘이중섭 은지와 은메달 20g’과 ‘이중섭 흰소 동메달 350g’, 보물로 지정된 데니 태극기를 카드 형태로 제작한 ‘데니 태극기 카드형 금메달’ 등을 선보인다.

주류 선물세트도 와인과 위스키, 사케 등으로 구성했다. 와인은 ‘5대 사포 2016 빈티지 세트’, ‘사포 무똥 로칠드’를 비롯해 ‘이태리 카를로사니 아이론 2입 세트’, ‘프랑스 보르도 슈페리어 2입 세트’, ‘알타감마 2입 세트’ 등을 선보인다.

위스키는 ‘더 낮가 리미티드’, ‘듀어스 더블더블 36년’, ‘발렌타인 10년’, ‘시바스리갈 12년’ 등을 판매한다.

/김서현 기자

롯데마트 PB ‘오늘좋은’ 선물세트 첫 선

롯데마트

오늘좋은 매일견과 선물세트 첫 출시
가격부담 줄이고 주요 견과류 비중 높여

롯데마트슈퍼의 자체브랜드(PB) ‘오늘좋은’이 명절 선물 시장으로 상품군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롯데마트슈퍼는 이번 추석 ‘오늘좋은 매일견과 80봉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오늘좋은은 2023년 론칭한 마스터 PB 브랜드로, 식품과 비식품을 아우르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명절 선물세트를 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마트슈퍼는 견과류 선물 수요와 원물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첫 명절 상품으로 견과 세트를 선정했다. 최근 주요 견과류 원물 가격이 오르면서 원가 부담이 커진 가운데 해외 직소싱을 통해 상품 구성을 차별화했다는 설명이다.

‘오늘좋은 매일견과 80봉 선물세트’는 아몬드 비중을 전체 원물의 40%로 구성했다. 호두와 땅콩 대신 마카다미아와 구운 캐슈넛도 포함했다.

원가 절감을 위해 원물 조달과 견과 가공이 모두 가능한 해외 전문 업체를 활용했다. 여러 수입업체와 제조업체를 거치는 기존 방식 대신 원물 수입부터 배합, 소포장, 완제품 제작까지 한 곳에서 진행하는 방식이다.



롯데마트·슈퍼 자체브랜드(PB) 상품 ‘오늘좋은’이 명절 선물 시장에 진출한다. /롯데쇼핑

롯데마트슈퍼에 따르면 아몬드 시세는 전년 대비 30% 이상 상승했다. 회사는 상품화 과정을 일원화해 원물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주요 견과류 비중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슈퍼는 이번 선물세트 출시를 시작으로 오늘좋은의 상품 영역을 명절과 시즌 상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외 소싱망을 활용해 식품과 생활용품뿐 아니라 특정 시기에 수요가 집중되는 상품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오세용 롯데마트·슈퍼PB·수출입부문장은 “이번 상품은 ‘오늘좋은’ 이름을 내건 첫 명절 세트인 만큼, 선물에 걸맞은 상품성과 실속을 함께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대용량부터 소병까지… 취향·용도 따라 선택

롯데칠성음료

정통주스 대명사 ‘델몬트’ 인기제품 구성
1.5L 페트병, 180ml 소병 세트 등 7종 마련

롯데칠성음료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와 정을 전하는 ‘델몬트주스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이번 선물세트는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는 마음 담은 선물’을 콘셉트로, 정통주스의 대명사 델몬트의 인기 제품을 다채롭게 구성했다. 대용량 1.5L 페트병 세트와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180ml 소병 세트 등 총 7종으로 마련해 취향과 용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1.5L 페트병 선물세트는 ‘애정(愛情)’, ‘감사

(感謝)’ ‘풍요(豊饒)’라는 한자와 탐스러운 과일 이미지를 조화롭게 담은 한국적인 정서를 표현한 패키지가 특징이다. 구성은 제주감귤·매실·포도 4본입의 ‘애정 세트’, 오렌지·포도·망고 3본입의 ‘감사 세트’, 토마토·망고 3본입의 ‘풍요 세트’, 제주감귤·매실·잔칫집식혜를 담은 ‘행복가득, 작은나눔 선물세트’ 등 총 4종이다.

델몬트 소병 선물세트는 프리미엄 과일주스를 한번에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180ml 제품으로, 10병 구성의 ‘오렌지·감귤 세트’와 각각 12병씩 담은 ‘포도·토마토·망고 세트’, ‘포도·토마토 세트’ 등 총 3종으로 구성해 실용성과 선택의 폭을 넓혔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감사와 정을 나누는 추석을 맞아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델몬트 대표 제품을 다양하게 담은 선물세트를 준비했



델몬트주스 선물세트.

/롯데칠성음료

다”며 “앞으로도 온 가족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델몬트주스를 선보이며 최고의 맛과 품질로 소비자들에게 보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델몬트주스는 한국농림협화컨설팅이 조사한 ‘2026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orea Brand Power

Index, K-BPI)’ 주스 부문에서 1위에 선정됐다. 조사가 시작된 1999년부터 28년 연속 1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10년 이상 연속 1위 브랜드에 주어지는 ‘골드브랜드’ 인증도 유지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짧은 연휴, 4050세대 피로 회복 돕는다

종근당

고함량 활성 비타민 제품 ‘벤포벨에스정’
명절음식·술자리 속 소화·간 기능 보호

올해 한가위 연휴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이다. 주말을 더해도 지난해보다 연휴가 짧아 명절 준비를 서두르고 귀성 인파가 몰리면서 몸과 마음에 가해지는 부담은 커지기도 한다. 특히 가정과 직장 모두에서 책임이 따르는 4050 ‘긴 세대’는 연휴에도 피로가 쌓인다. 직장에서의 강도 높은 업무를 마무리하는 한편, 가정에서도 장거리 운전, 장비기 등 일의 연속이다.

누적된 피로와 함께 기름진 명절 음식, 연이은 술자리 등은 소화 기능과 간 기능을 저하시킨다. 갑작스러운 지방 섭취는 소화 불량을 유발하고 알코올 대사 산물은 제때 처리되지 못하면 무기력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종근당의 ‘벤포벨에스정’은 이러한 중장년층 어른들을 위한 고함량 활성 비타민 제품이다. 국내 최초 말초신경병증 치료 성분인 메코발라민, 뇌의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주는 비스벤티아민, 육체 피로 개선 효과가 빠른 활성형 비타민 벤토티아민 등을 함유한다. 이와 함께 타우린, 메티오닌, 오로트산 등의 성



종근당 벤포벨에스

/종근당

분이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준다.

또 우르소데옥시콜산(UDCA)을 비타민 제조 기준 최대 함량인 60mg 처방했다. 우르소데옥시콜산은 담즙 분비를 촉진하고 간 세포를 보호하는 기전을 갖춰 간 부담을 낮춘다.

종근당 관계자는 “벤포벨에스정이 지친 어른들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휴일수록 육체적 피로가 맞물리기 쉽고 한 편, 명절에 오고 가는 가족 간의 크고 작은 신경전 역시 명절증후군의 주요 원인인 만큼 ‘몸이 지치면 마음의 여유도 줄어드는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선 충분한 수면, 산책 등 휴식을 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동국제약

‘마이핏V 리포좀 멀티비타민 미네랄’
리포프라임 공법 적용해 흡수율 극대화

동국제약은 명절을 맞아 일상을 바쁘게 보내다 보면 소홀해지는 건강을 간편하게 챙길 수 있는 종합 영양제를 소개한다. 특히 환절기 건강 관리가 중요한 시기인 만큼 효과와 안전성을 갖춘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에 발맞춘다.

동국제약의 마이핏V 리포좀 멀티비타민 미네랄’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께 담은 것이 특징이다. 국내 특허를 획득한 ‘리포프라임’ 공법을 적용해 영양소의 체내 흡수율을 극대화했다. 세포막과 유사한 인지질 이중층 구조를 갖춘 리포좀이 영양 성분을 감싸도록 설계됐고 내포 작용을 통해 체내 세포막에 흡착·흡수된다.

이러한 리포좀화 과정에서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 리포좀 구조와 내부 성분을 투과전자현미경(TEM)으로 정밀하게 검증하고 지속적인 추적 검사를 실시해 제품 신뢰도를 높였다.

성분 구성 역시 차별화됐다. 동국제약의 독자 배합으로 비타민 A, B1, B2, 나이아신, 판토텐산 등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 17종을 처방했다. 모두 1일 영양



‘마이핏V 리포좀 멀티비타민 미네랄’
/동국제약

용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 휴대성과 편의성도 갖췄다. 위생적인 개별 PTP 포장으로 제작해 명절 연휴 이동 중에 가방 속에 쏙 넣고 다니면 된다.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건강 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예년보다 이른 명절이 다가오면서 면역력 등 건강 관리까지 중요해진 시기”라며 “마이핏V 리포좀 멀티비타민 미네랄은 흡수율에 집중한 제품으로 현대인 맞춤형 건강 관리 제품”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자연에서 얻는 아름다움… ‘항노화’ 뷰티

LG생활건강

더페이스샵 ‘더 테라피’ ‘예화담’ 스페셜 세트
비온드 ‘딥 모이스처’ 바디 2종 세트 ‘눈길’

LG생활건강은 올해 한가위 선물로 세월의 흔적을 다스리고 피부 힘을 키워주는 ‘항노화’ 뷰티를 내놓는다.

우선 더페이스샵의 ‘더 테라피’ 항노화 2종 스페셜 세트는 고기능성 제품이다. 피부 깊은 곳부터 보습과 탄력을 관리해 준다. 특히 이탈리아 마르케 지역의 전통 비법을 활용해 귀리, 마리골드 꽃, 월계수 잎, 올리브 열매 등에서 유래한 영양 성분을 처방했다. 토너와 트리트먼트 기능을 결합한 토너 트리트먼트 150ml와 에멀전 130ml을 정품으로 담았다. 각각을 32ml 소용량으로 구성한 증정품도 함께 제공하며 직접 섞어 쓰는 오일 블렌딩 크림도 더했다.

이와 함께 더페이스샵의 ‘예화담’ 환생과 보윤 크림 스페셜 세트는 영지, 상황버섯, 신양삼 등 12가지 한방 원료에서 얻은 효능을 갖췄다. 한방 스킨케어 구현해 피부 결과 윤기를 품격 있게 가꿔준다. 또 올해는 브랜드 10주년을 기념해 한국 전통 매듭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한층 높였다. 또 보윤 크림 정품 50ml에 동일 제품 25ml 2개를 추가해 본품 대비 2배 용량으로 실속을 챙겼다.



LG생활건강 추석 선물세트 ‘더페이스샵 더테라피 항노화 2종 스페셜 세트’
/LG생활건강

얼굴은 물론 바디 피부를 위한 비온드의 ‘딥 모이스처’ 바디 2종 세트도 눈여겨볼 만하다. 바디워시와 에멀전을 모두 500ml 용량으로 준비해 건강한 바디 피부를 완성할 수 있다. 피부 구성 성분과 유사해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스킨미믹 세라마이드 복합물을 함유한 것이 특징이다. 플로럴 마스크 향이 어우러져 비온드만의 포근함을 표현해 따뜻한 감사 인사에도 적당하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자연으로부터 얻는 아름다움과 가장 한국적인 미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일상을 고려하는 다양한 K뷰티 브랜드와 함께 풍성한 명절 연휴를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세계적인 명화·일러스트 선물하세요”

애경산업

빈센트 반 고흐·구스타프 클림트 컬렉션 등
선물 세트에 입혀… 친환경 요소도 반영

애경산업이 생활용품 브랜드 제품에 세계적인 화가들의 명화와 따뜻한 감성의 일러스트를 입힌 특별한 선물 세트를 선보인다. 빈센트 반 고흐, 구스타프 클림트, 클로드 모네 등 유명 화가들이 가진 독보적인 색채와 분위기가 추석의 풍요로움,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고 있다.

빈센트 반 고흐 컬렉션은 축복을 전한다.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상징하는 작품 ‘아몬드 꽃’은 오브제 컬렉션 16호에 적용됐다. 안부를 전하는 ‘우체부 조셉 롤랭의 초상’은 트레저 에디션 C-1호에 그려졌다.

구스타프 클림트 컬렉션은 화려하다. 고운 1:2:3 호의 ‘꽃이 있는 농장 정원’은 소중한 사람에게 풍성한 꽃다발을 선사하는 느낌이다. 아플리에A에는 ‘해바라기가 있는 농장 정원’과 ‘키스’의 황금빛 색채를 입혔다. 오브제 컬렉션 25호는 ‘나무 아래 장미 덩굴’을 통해 초록빛 정원에서 편안한 휴식을 전달한다.

자베르니의 아티스트 정원, 양산을 든 여인 등 ‘클로드 모네’ 컬렉션은 리미티드 12호에서 경험할 수



‘퍼퓸 컬렉션 20호’

/애경산업

있다.

지은그림 작가와 협업해 일상 속 다정한 순간을 구현한 ‘퍼퓸 컬렉션 20호’도 다채로운 매력을 더한다.

아울러 이번 선물 세트에는 친환경 요소도 적극 반영했다. 일체형, 서랍형 설계로 종이 사용을 줄이고 플라스틱 용기는 재활용 소재를 활용했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이번 선물 세트는 실용적인 제품에 세계 명화와 감성 일러스트를 넣어 명절 선물의 의미와 가치를 한층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은 애경산업의 선물 세트가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에게 깊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구광모 회장
“AI, 미래의 핵심
빠른 실행 필요”
04



Life

SK하이닉스
3만명 초청
‘땡스폴 데이’
L1



“일품진로, 하이볼로 가볍게 즐겨요”

하이트진로

믹솔로지 트렌드 겨냥한 ‘하이볼 세트’ 출시
지거&머들러 개발... 전용 하이볼잔 리뉴얼

국내 대표 종합주류기업 하이트진로가 ‘일품진로 하이볼 선물세트’를 한정 출시한다고 밝혔다.

M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된 믹솔로지(Mixology) 트렌드를 겨냥해 일품진로를 부담 없이 가볍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하이트진로는 일품진로를 활용해 쉽고 편하게 하이볼을 만들 수 있도록 ‘일품진로 지거&머들러’를 개발하고 ‘일품진로 하이볼잔’을 리뉴얼했다. ‘일품진로 지거&머들러’는 하이볼 스틱 형태의 굿즈로 계량과 찌는 기능을 한 번에 갖췄다. ‘일품진로 하이볼잔’은 350ml 용량으로, 일품진로 병의 플루티드(세로 줄무늬) 디자인과 사각형 윤곽을 적용해 브랜드 정체성을 더욱 명확히 드러내도록 리뉴얼했다.

일품진로 하이볼 선물세트는 2본입 세트와 3본입 세트 두 종류로 출시된다. 2본입 세트는 ▲‘일품진

로 25’ 2병 ▲‘일품진로 리뉴얼 하이볼잔’ 1개로 구성, 3본입 세트는 ▲‘일품진로 25’ 3병 ▲‘일품진로 지거&머들러’ 1개 ▲‘일품진로 리뉴얼 하이볼잔’ 1개로 구성됐다.

2본입 선물세트는 전국 대형마트, 3본입 선물세트는 전국 창고형 할인점에서 9월 2주차부터 순차적으로 만나볼 수 있다.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관계자는 “혼술과 믹솔로지 트렌드가 확대되며 증류식 소주 일품진로도 하이볼의 좋은 선택지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품진로



일품진로 하이볼 선물세트 2종.



/하이트진로

의 우수한 품질, 다양한 음용법을 소개하고 차별화된 소비자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간간한 품질관리로 거품까지 완벽한 생맥주

오비맥주

스텔라 아르투아 ‘퍼펙트 서브’ 확대
품질 강화에 생맥주 판매량 16% 증가

스텔라아르투아가 생맥주 품질 관리 프로그램 ‘퍼펙트 서브(Perfect Serve)’를 확대하며 매장 내 생맥주 품질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교육 매장 확대와 함께 참여 매장의 생맥주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다.

스텔라 아르투아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국내 퍼펙트 서브 교육 매장은 2552곳으로, 전년 동월 1397곳보다 83% 늘었다. 운영 지역도 같은 기간 전국 46개 도시에서 80개 도시로 확대됐다.

퍼펙트 서브는 생맥주의 보관부터 전용잔 준비, 푸어링, 거품 형성, 최종 서빙까지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품질 관리 프로그램이다.

교육 이수 매장의 2025년 평균 생맥주 판매량은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현장에서도 판매 증가 사례가 나타났다.

서울 강남 더블린테라스 이장윤 바텐더는 “퍼펙트 서브를 통해 일정한 기준으로 관리된 생맥주를 제공했을 때 고객 반응에서도 차이를 느낀다”고 말했다.

2026년부터 참여한 줄리스피자 사로수길 삼재우 대표는 “퍼펙트 서브 인증서를 보고 생맥주에 관심을



스텔라 아르투아 퍼펙트 서브.

/오비맥주

보이는 고객들이 늘었다”고 밝혔다.

스텔라아르투아는 교육 이후에도 현장 품질 유지를 위해 퍼펙트 서브 어워즈를 운영하고 있다. 이장윤 바텐더는 올해 대회에서 2년 연속 우승해 한국대표로 글로벌 대회에 출전했다. 조영준 바텐더는 2025년 글로벌 대회에서 한국인 최초 챔피언에 오른 데 이어 올해 한국인 최초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퍼펙트 서브는 정기 트레이닝과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품질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신원선 기자

82년 이어온 깔끔한 맛... 제례에 안성맞춤

롯데칠성음료

건강과 행복을 비는 대표 전통 차례주
편의성 높은 180ml 소용량 제품도 인기

‘백화수복’은 82년 전통의 대표 차례주로 받는 이의 건강과 행복을 비는 마음이 담긴 제품이다.

‘백화수복’은 1945년 출시된 이후 오늘날까지 82년의 긴 역사를 갖고 있으며, 100% 국산 쌀의 외피를 30% 정도 도정 후 사용하고, 저온 발효 공법과 숙성방법으로 청주 특유의 부드럽고 깔끔한 맛을 살린 것이 특징이며, 알코올 도수는 13도이다.

우리 민족의 정성된 마음을 담아 내기 위해 라벨은 동양적인 붓글씨체를 사용하고 라벨과 캡(병뚜껑)에도 금색을 적용해 고급스러움과 우리나라 대표 차례주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백화수복은 조상님들에게 올리는 제

백화수복 700ml.

/롯데칠성음료



례용 또는 명절 선물용으로 안성맞춤이며, 따뜻하게 데워 마셔도 좋아 찬 바람이 부는 계절에 음용하기에 더 좋다.

또한 최근에는 기존의 제례주의 개념을 넘어 휴대 및 음용 편의성과 다양한 주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백화수복’의 180ml 소용량 제품인 ‘백화수복 원컵’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약 50% 정도의 성장세를 보이며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저변을 확대해가고 있다.

이에 롯데칠성음료는 ‘백화수복 원컵’의 범용을 위해 작년부터 부산 광안리의 ‘삼진포차’에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팝업 이벤트를 진행했고, 캠핑 등의 아웃도어 용품과의 다양한 콜라보 이벤트를 펼치는 등 적극적 마케팅을 펼쳤다. 그 결과, ‘백화수복 원컵’의 작년 판매량은 전년 대비 약 100%가 성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제례주를 넘어 다양한 일상에서 음용되는 ‘백화수복’은 700ml, 1.8l의 병 제품 2종과 180ml 소용량 원컵 제품으로 이뤄졌으며, 차례 또는 선물용으로 700ml, 1.8l 제품은 할인점, 편의점 등 다양한 곳에서 구입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깊은 풍미에 전용잔 더해 위스키 품격 완성

골든블루

하이볼·온더락 전용잔 구성한 2종 세트 선택
위스키 부드러운 맛 살리는 실용적인 구성

K-주류 문화를 선도하는 골든블루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고급스러운 패키지 디자인과 소비자 맞춤형 전용잔으로 실용성을 높인 ‘골든블루 명절 선물세트’ 2종을 한정 출시했다.

이번 명절 선물 세트는 골든블루의 대표 스테디셀러인 ‘골든블루 사파루스’와 ‘골든블루 다이아몬드’ 2종으로 기획됐다.

올해 패키지는 보석의 반짝임을 모티브로 한 고급스러운 크로스 패턴을 전면에 적용해 시각적인 매력을 한층 끌어올린 것이 특징이다. ‘골든블루 사파루스 세트’는 신뢰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다크 네이비, ‘골든블루 다이아몬드 세트’는 혁신과 도전을 뜻하는 오렌지 컬러 바탕에 화려한 패턴이 더해져 명절 선물의 품격과 소장 가치를 극대화했다.

특히 이번 선물 세트는 각 제품이 지닌 고유의 매력과 다변화된 소비자들의 음용 취향을 고려해 전용잔 구성을 차별화했다.

‘골든블루 사파루스 세트’는 국내 판매 1위 위스키의 대중성과 높은 완성도를 담아 450ml 위스키 1병



골든블루 명절 선물세트.

/골든블루

과 하이볼 전용잔 1개로 구성됐다. 골든블루 사파루스는 특유의 부드러운 목 넘김과 깔끔한 풍미 덕분에 스트레이트, 온더락은 물론, 탄산수·토닉워터 등을 섞어 하이볼로 즐기기에 도 제격이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다양한 음용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위스키를 즐길 수 있도록 톨 글라스(Tall glass) 형태의 전용잔을 함께 제공해 실용성을 극대화했다.

‘골든블루 다이아몬드 세트’는 450ml 위스키 1병과 고급 언더택잔 2개로 구성돼 프리미엄 위스키의 품격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 세련된 커팅이 돋보이는 전용잔은 골든블루 다이아몬드 특유의 깊은 풍미와 부드러움을 극대화해 준다. 위스키 본연의 맛을 살리는 실용적인 구성으로 선물로서 프리미엄 가치를 한층 높였다. /신원선 기자

감사의 마음 담아... 특별한 와인 선물을

나라셀라

몬테스·케이머스·파니엔테 대표브랜드 3종
대중적인 국민와인부터 하이엔드 컬렉션까지

나라셀라가 다가오는 한가위를 맞아 소중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와인 선물 세트를 선보인다. 대중적인 국민 와인부터 비즈니스 파트너를 위한 하이엔드 컬렉션까지, 품격과 진심을 전할 수 있는 대표 브랜드 3종(몬테스, 케이머스, 파니엔테)을 엄선해 준비했다.

먼저, 국내 누적 판매 1700만 병을 돌파하며 명실상부 ‘국민 와인’으로 자리매김한 칠레의 ‘몬테스(Montes)’ 선물세트가 준비됐다. 잘 익은 붉은 과일 풍미와 부드러운 탄닌이 조화를 이루는 ‘몬테스 알파 카베네 소비뇽’은 갈비찜, 불고기 등 양념이 가미된 한국 정통 명절 육류 요리와 완벽한 마리아주를 보여준다. 함께 구성된 ‘몬테스 알파 샤도네이’는 은은한 오크 풍미와 기분 좋은 산도로 기름진 각종 전이

나 나물 요리의 뒷맛을 깔끔하게 잡아준다.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신뢰와 성에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싶다면 나파 밸리의 살아있는 전설 ‘케이머스(Caymus)’ 세트를 추천한다. 케이머스는 특유의 짙은 농밀함과 벨벳처럼 부드러운 탄닌으로 전 세계 와인 애호가들의 찬사를 받아온, 신뢰할 수 있는 대표 명가다. 화려한 과실 향과 묵직한 구조감이 돋보이는 ‘케이머스 나파 밸리 카베네 소비뇽’에 바다와 태양의 에너지를 머금은 프리미엄 화이트 ‘메르솔레이 리저브 샤도네이’가 더해져,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명절 선물이 된다.

최상의 예우가 필요한 자리를 위한 프레스티지 라인업으로는 ‘파 니엔테(Far Niente)’ 세트를 선보인다. 풍부한 카시스 아로마와 실크 같은 우아한 질감이 압권인 ‘파 니엔테 나파 밸리 카베네 소비뇽’, 그리고 나파 밸리 화이트의 기준점으로 꼽히는 ‘파 니엔테 나파 밸리 샤도네이’로 구성되어, 받는 이에 따라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지는 최고급 명절 선물이다. /신원선 기자



추석 프리미엄 와인 선물세트.

/나라셀라

/신원선 기자

삶 속으로 AI가 성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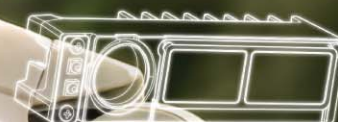
디지털에 머물던 AI를, 삶 속에서 움직이는 AI로.
LG가 사람을 위한 피지컬 AI 시대를 열어갑니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로봇 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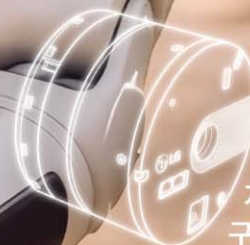
감정을 전하는
표정 디스플레이



보고 느끼는
감각센서



피지컬 AI의 심장
배터리



자유로운 동작을
구현하는 액추에이터



섬세함을 구현하는
손센서

미래, 같이

AI로 세상을 미소 짓게 하는
미래가치를 만듭니다

